朝鮮日報 夕刊 一日(月)

重要閣員決定으로 今日中林內閣成立乎

陸相엔中村中將、藏相엔結城氏確定

【東京電話同盟】林大將의 組閣工作은 一日에이르러 後任陸海兩大臣의 問題가 圓滿히 解決되게 되엿슴으로 漸次 本軌道에 올러 다른閣僚의 具體的銓衡에 드러갓다 그結果 今日中에 閣員名簿를 捧呈하고 宮中외御形便을보아 親任式을 擧行할 自信이생기게되엿다 그리고 正午까지에 決定한 閣員面貌는 다음과갓다

首相 陸軍大將 林 銑十郞

外相 當分間首相兼攝 (齋藤駐米大使歸國을기다려專任)

確定有力閣僚의面貌

內相 元內務次官 河原田稼吉(確定)

藏相 興銀總裁 結城豊太郞(確定)

陸相 陸軍中將 中村孝太郞(確定)

海相 海軍中將 米內光政(確定)

法相 大審院檢事 鹽野秀彥(確定)

文相 男爵 黑田長和

農相 石黑忠篤 또는 山崎達之輔

商相 松本烝治 또는 伍堂卓雄

遞相 田邊治通

拓相 首相兼攝

또 政黨側으로부터 入閣하는境遇에는 鐵相候補者로서 黨籍離脫을 條件으로 中島知久平 永井柳太郞의 兩氏가 有力하다

(寫眞은 林大將)

閣僚續續決定 翰長、法制局長官도決定

【東京電話同盟】後任海相은 米內光政中將으로 陸軍大臣은 中村孝太郞中將으로 大藏大臣은 興銀總裁結城豊太郞氏로 決定하엿다

【東京電話同盟】大橋八郞氏는最初法制局長官으로 豫定이엿스나 事情으로 一日에至하야 內閣書記官長으로 決定하엿다 大藏次官川越丈雄氏는 法制局長官으로 決定하엿다

組閣行進曲高調에

【東京電話同盟】組閣本部의 第一夜는 지낫다 昨夜林大將은寒夜深更에 이르도록 沈思默考午前三時半에 寢床에들어갓다 午前七時에 起床 冷水摩擦을한後 朝食을마치고 모닝으로 二階組閣本部의 大廣室에들어갓다 大將은 早朝부터 助力하는 十河信二氏와 會談하고 昨日의 「靜」은 俄然「動」으로轉하야 午前九時四十分玄關에 나와 自動車에올랏다 組閣作戰의 第一步는 陸軍省에 寺內陸相을 訪問하고 海軍省에로갓다 永野海相과會見하고 午前十一時二十分 돌아갓다 快速列車의戰術은 急速度로 進行한다 須臾에十一時五十分 永野海相登場 閣僚의陣容決定도 가깝다하야 組閣本部의新閣記者天幕村은 活躍하여진다 組閣本部에는 早朝부터 大將의故鄕石川縣으로부터 上京한 金澤市長等이 「獅子奮迅」을祈念하야 獅子舞獅子와 木刀一個를

湯淺內大臣談

【東京電話同盟】三十一日夜九時十六分參內한 湯淺內府는 天皇陛下께拜謁의吩咐를받고 政情에關하야 여러가지 御下問에 奉答하고 同十一時四十分宮城을退出하야 牛込私邸에 들어가서 左와如히말하엿다

日曜임으로 終日籠居하얏는데 가지고와다 쉬일사이업는訪問이 不絶하고 電話이山積하야 明朗한 組閣行進曲은 漸漸高調되어왓다 新聞과 라디오로 여러가지情報가잇섯고하야 今日政情에關하야 奏上하고저 생각하고잇섯다 侍從長도 訪問하야 여러가지 會談하엿는데 參內하야서는 매우情報를모아 陛下께詳細히奏上 御下問에 奉答하엿다 도侍從長과의 會談에잇서서는 다른問題가잇섯는데 이는말할수업다 陛下께압서 日曜日에도 不拘하고 御精勵하심에는 惶恐不已이다

津田鍾紡社長 商相就任拒絶

【東京電話同盟】林大將은 三十一日午前鍾紡社長 津田信吾氏에 對하야 商工大臣으로서 入閣을 交涉하엿는데 津田氏는 이를拒絶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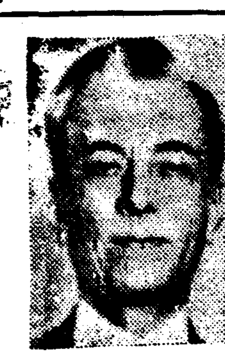
齋藤駐米大使에 外相、就任을交涉

【東京電話同盟】外務大臣의 銓衡에 關하야는 當分林首相이兼攝하고 駐米大使齋藤博氏의 歸朝를 기달리여 同氏를專任外相으로하기로 決定하엿다 따러서 一日組閣本部로부터 林大將의이름으로서 齋藤大使에 外相就任을 電報를 寄하야 折衝을行하고 諾否의 回答을 기달리기로되엿다

齋藤大使受諾하면 次官에는白島公使

【東京電話同盟】外務大臣에는駐米大使齋藤博氏를起用하기로內定하고同大使의 歸朝하기까지는首相兼攝이다 同大使가 外相에 就任한다면 外務次官에는 目下歸朝中인 瑞典公使白島

比島大統領參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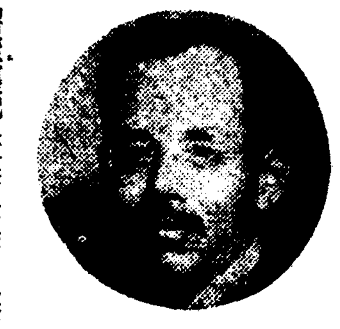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三十一日夜入京한比島大統領케손氏는 그루ー米大使와가치 一日正午宮中에 參內 天皇陛下께압서는 御通常禮裝으로 松平宮相百武侍從長松平式部長官을 隨하압시고 出御 宮殿에서 大統領에 御對面、大統領은 敬意를表하엿다 天皇陛下께압서는 午後零時半豊明殿에서大統領을 主賓으로 高松宮殿下御臨席 그루ー大使 湯淺內府 有田外相、松平宮相을爲始하야 側近等에도 陪席御賜餐 優雅한 奏樂裡에午餐會를 御催 日比親善에關하야種種御歡談하압실것으로 拜聞하는데 大統領은 光榮에感激하면서 二時頃宮城을退出하엿다

(寫眞은 케손比島大統領)

內中將에 歸東을命令

【[illegible]電話同盟】永野海相은 一日聯合艦隊司令長官兼第一艦隊司令長官 米內光政中將에對하야 上京을 命하엿다 同中將은 後任海相으로 決定될것이라 [illegible]

馬場財政修正이 結城氏入閣條件



【東京電話】林大將은現下內外情勢에鑑하야 我國財政의前途는極히 重大한바잇다하야 豫算膨脹抑制政策、經濟統制强化其他我國이 當面한財政經濟問題에對處하기爲하야 閣員人選에當하야 大藏大臣은 財界方面에信用이잇슴과 同時에 革新政策을斷行할수잇는 見識과閱歷을有하는 人物을求하야 興銀總裁結城豊太郞氏에게 卅一日 사람을遣하야 交涉을行하얏다 其際結城氏는 馬場藏相의 豫算編成方針 財政革新에關하야 全幅的으로 贊同할수업다는 意向을表示하고 國防費를 中心으로하는 大豫算及 增稅斷行을不得已하다할지라도 馬場案에 [illegible] 修正을加하여야한다는 意見을 갓고잇슴으로 此案件을林大將이 承認할것가트면 入閣을受諾할 模樣이다 (寫眞은 結城氏)

政策은就任後에 結城豊太郞氏談

【東京電話同盟】結城豊太郞氏는 一日午前十一時 組閣本部를 辭去 麻布의 私邸에 도라왓는데 如左히말하얏다

林大將과 會見하야 大將의意見을듯고 自己의 心中도着實하야 서로 알게되엿다 그러나 自己의 政策에 關하야는 大命을 拜受한後가 아니면 모것도 말할수업다 林大將은 財政經濟에 關하야는 모다自己에게 맛기겟다고하얏다

西朝鮮地方 南總督視察談

平南北 黃海道를 視察하고 卅一日夜 歸任한 南總督은 一日午後一時 總督室에서 記者團을 會見하고 左와 如한 視察談을 하엿다。

今般 視察한 王道는 着任後 第一回道知事會議의 決定事項이 어떤 程度의 成績을 보이고 잇는가를 보고 行함이 眼目이어서 道廳 府廳 郡廳 法院 農村 指導者訓練所等을 大槪보앗는데 大體로 滿足할 程度이엇다 또各機關이 서로 協調하여 圓滿한것을 볼수잇섯다 各地의 中等以上 公私立學校를 大槪視察하고 訓示를 하엿는데 모다 致便의 成績良好한것은 將來企待할바 크다고 보앗다。平北의 官民一般에게 바라는바는 鮮滿一如의 精神에基하야 諸工作을 하되 滿洲와의 接境인만큼 他地方보다도 模範이 할것을 바랫

고 또安東省民에도 安東省民은 滿洲側의 어느地方보다도 鮮滿一如의 精神을 體得하여야할것을 말하엿다 鴨綠江은 國境이아니고 兩地의 連絡水로알어야한다 滿洲[illegible] 東과 新義州와가티 되어야하는데 [illegible] 水力電氣 鄭便等으로 南北[illegible] 곳實現될터이다

平南은 土業地로서 大同江을 利하여[illegible] 맺는다 有名한 平壤平[illegible] 死國華에 年六千[illegible] 年年減少된은 遺憾이다 [illegible] 를 꾀할것이다

黃海道는 西朝鮮側의 寶庫로 農產物의 產地로서는 全朝鮮에 最優秀한곳이다 氣候가조코 海岸線이길고、平地가 만흔點으로 보아또 工業地로 發展할수잇스리라고 잇는다

◇

各地를 視察한바 모다 發展할곳인데 地價가 投機로因하여 意外로 昻騰하야 工業者가 손을 대기힘들게되는 遺憾이다고 하려고 特히 希望하는바는

一、國語普及은 徹底히할것

二、時局認識을 徹底히하고各自職務에忠實할것

三、朝滿一如의 精神을 徹底히할것

等이다 또 送迎은 簡單히하야 兒童特히 幼稚園兒들까지 추이에 나와 오랫동안 떨게하는것等은 不可하다

雙方의妥協으로 陸相問題遂解決

【東京電話同盟】陸軍은後任陸相에關하야三十日三長官會議를열고現敎育總監杉山元大將을推擧하기로 決定하엿는데 杉山大將은宇垣大將의 組閣工作中의 經緯에 鑑하야 陸相에 就任할수업다는 理由로 辭退하엿는데 現敎育總監部本部長中村孝太郞中將을 後任陸相에 推擧하기로 三長官의 意見이 一致한것이다 (寫眞은 中村中將)

【東京電話同盟】組閣本部에서 如左히發表하기로되엿다 分

今日午前九時 林大將은 陸軍大臣과 電話로 意見을 交換한 結果 後任陸相의 人選에 對하야 意見一致를 보앗다 이에서 海軍大臣과도 電話로 말한結果 後任海相의人選에對하야도 意見一致를보앗다 午前九時五分 林大將은 河原田稼吉氏를 招致하얏다 午前九時半 林大將은 結城豊太郞氏를 招致하얏다

中村參與組閣本部訪問

【東京電話同盟】內閣調查局參與中村藤兵衛氏는 三十日午後五時五十分組閣本部를 訪問하엿다

【東京電話同盟】後任陸相問題에 對하야 陸軍側과組閣本部間에意見이不一致되엿섯스나 三十一日深夜에이르러 兩者가協議한結果 部內大勢와 非常時突破의 大乘的見地로부터 後任陸相에는 林大將도 三長官이推薦한中村孝太郞中將의就任을受諾하고 그代身組閣本部의 要求도容認하야 板垣中將을 次官에推擧하기로協定成立되여 一日午前九時부터열리는三長官會議에서 正式으로推薦하기로되엿다

大橋氏發表 組閣本部에서

【東京電話同盟】組閣本部發表 大橋八郞氏는 一日午前十時四十

意見衝突로 十河氏는引退

【東京電話同盟】林大將의 組閣參謀長으로서參劃하고잇든 十河信二氏는 組閣途上에서 林大將과 意見을 달리하야 一日午前十時 組閣에서 一切 손을떼고 自邸로 撤歸하얏다

【東京電話同盟】組閣本部에招致된河原田稼吉氏는 左와如히말한다

大橋君이 만나고자함으로 訪問하엿는데 무순일인지 會見한後가아니면 말할수업다 境遇에따라서는 林大將에會見할지도모른다

河原田稼吉氏談

林內閣은結局 漸進的革新內閣

組閣上急進的革新派意見排除

【東京電話同盟】林大將은 宇垣首腦部反對에 맛나고 또海軍과 大將流產의 뒤를밧고 組閣에着手하때 組閣參謀長으로서 十河信二氏를 마지하야 組閣에 着手하엿는데 十河氏는 現下內外重大時局에 鑑하야 革新政策을 斷行하야 陸海軍首腦部와의妥協을求하엿다 에 急進的革新政策斷行의 初志를 貫徹을 要求하엿다 이에對하야 林大將은時局이 重大한此際도內閣의 板垣中將、海相에 末次大將의 入閣을 因執하고 其他閣僚의 企圖하며 閣僚의銓衡에도 陸相에 新的分子의 支持를받고 林大將·十河氏는 二者後에잇는 革新的分子를 入閣시키고 主張하엿다 그런데 林大將은 陸相就任에 對하야 陸軍 讓步하여서라도 組閣完成을 圖

할밧게 업다는決意를 固持하고 組閣工作을도로부터 引退하기로되엿 다 따러서 林內閣은當初의方針을 緩和하야 漸進的革新內閣으로變更하기로하고 後任陸海軍兩大臣 問題도 解決을告하야 이를契機로서 十河氏는組閣本部로부터退陣하야 組閣交涉은 漸次本軌道에올러 順調로進行을보게되엿다

十河氏退陣과그裡面

米國側의林大將評

【華盛頓三十日發同盟】林大將에 組閣大命이 降下되엿다는 東京電報에對하야 米國政府當局은 嚴重한沈默을직히고 極力批評을避하고잇다 그러고林大將의 人物에對하야는 一部軍人外는 事實을全然모르고 오즉一般의 報道에基하야 林大將은아마 國際的經驗은적은便이다 林大將의생각은普通日本軍人보담은 리베랄할터이나 結局國家主義的이라는 想像을내리고잇다

新陸相에件한 異動豫想

【東京電話同盟】中村中將은 陸相으로서 就任하기로 決定되엇스므로 敎育總監部 本部長의候補者는 師團長으로부터는 近衛師團長 香月淸司 第四師團長 今井淸의 兩中將 新進으로서는○○○司令官 園部和一郞 步兵學校長 藤田進의 兩中將이 風說에 돌고잇다 또 板垣中將이 次官으로 就任되는境遇에는 關東軍參謀長候補는 第一師團司令部附 土肥原賢二、○○○司令官 東條英機의 兩中將이 轉任될것으로 推測되다 이러境遇에는 梅津次官은 大體 參謀本部附 또는 兵器本廠附에 待機하야 三月의 定期異動時 他에 轉職될것으로 觀測되다

中村中將 林大將과會見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一日 三長官이會議한結果 後任陸相에는中村中將을推擧하기로 決定하엿는데 中村中將은 林大將의招致에依하야 一日午前十一時半陸相官邸를나와 組閣本部에들어가 林大將과會見하엿다

人事·集會

◀棟居俊一氏(專賣局長)渡東中이든바 至十一日歸京

八面鋒

◇陸海軍兩大臣後任問題로 多少의葛藤을뵈이든 林內閣의組織도 一日中으로는될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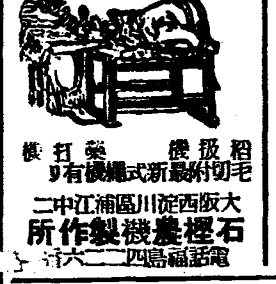
◇다음에올것은 議會解散問題 悲風慘雨는지나갓다해도 天氣晴明은아즉어려운모양。

◇大藏大臣에 結城興銀總裁가 就任하기로內定。

◇馬場財政의修正을 平時부터 말하든人物이라 그修正의手法 과程度가問題。

◇國防充實、產業振興、生活安定을 全部다잘할수만잇다고하면 이以上의조흔일은업슬것。

◇그러나 萬全은結搾하고 十全도어려운것이 世事의常態이니 말성이만흘것은當然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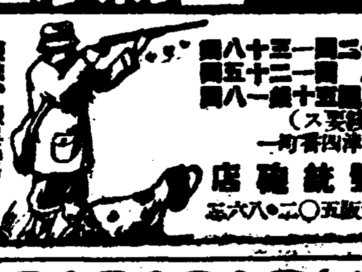


卸 禁 萬年筆カタログ進呈
大阪市南區日本橋北詰
萬年筆製造卸 田中營業所
電話南一七七六番 振替大阪三〇四四四番

印刷物經濟化！

(目錄進呈) 大阪市日本橋四丁目 太陽商會 電話一五三三
太陽卓上石版印刷器 事務에商戰에敎育에 社交에理想的인本器를推奬

昭和十一年式 大發明特許 カガリ無シ 軍手製造機械
製造の軍手
多年大難點である軍手製造中で一番困ります軍手の中部編を無くし指先よりの「カガリ」迄連續編成出來る發明、特許機械に依る事實を製造家は完全なる軍手をも編むと云ふ品質なら優秀る手の品であります是非に優秀な……
本社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 會社次第 大阪市阿倍野筋二八番地 商文 城 店 …

命中正確 彈力强大 空氣銃


圍碁 通信敎授デ必ズ初段ニ成レル… 大阪天王寺 山口書店

生徒大募集
公認 東亞自動車講習所
◆運轉手試驗ニ合格セントスル者ハ來レ ◆絕對責任敎授 學費最低廉
◆今ガ入學ノ絕好時期
◆練習車 練習場 完備朝鮮第一 ◆就職無料紹介
場所 京城府若草町橋本フォード自動車販賣店內
經營 元京畿道運轉者試驗官主任警部 溝見良
本局六七〇四
(學則送呈參觀歡迎)

鮮內唯一
最新最效 物療電醫責任養成
本院總長은東京電醫學校創始學長
◎物理最效醫學全科를短期卒業 全國本院卒業自由開院安心
◎今回는卒業後分院長이되는特典이잇슴 迷惑치말고배워서生涯成功의길을차하라
內務省令近間發令으로前途漸漸有望 內容規則進呈(切手二錢)申込順으로特典贈呈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朝鮮高等電醫總本院

外交員募集
大阪某洋服店에서 朝鮮各地方에 外交員을採用하오니 希望이有하신분은 二月七、八日까지에 拙者에게까지 履歷書添附하야 申込하여주시면大阪서 本店員이 二月七八日頃來京後面會場所와 日時를通告하겟슴니다 洋服採寸法은 敎授하겟슴으로 經驗의有無는不拘하오며 收入은 月收百圓以上二百圓內外되옵고 但書面申込에限하오며 二月十五日內로面會通告가無하거든不合格인줄아시압 面會는謝絕함
京城府館洞町一七三 崔致亨

參謀本部陸地測量部 五万分一地圖 發賣元 京城公平町八 東亞商會

百日咳에는 아해가조와하는 小兒用고데스 子供のコデス 三年 木下三郎
懸賞標語募集 特色을表現한것으로 最新鎭咳藥고데스의 特色을表現한것 一句一枚에限함 …
本舖 東京市京橋區入舟町 笹岡製藥所
맛고 달콤한 한봉 드리고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 錢 (각약점에서 판매)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資本金參千萬圓 頭取 有賀光豐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全鮮各地에支店出張所及內地에支店(東京大阪)

京城府黃金町 李先根小兒科醫院
各房獨房 院長 李先根 副院長 龐德興
電話光③二〇〇八番

▲光武劇場 上往十里町 明治十三年 新興キネマ特作大映畵 大衆俱樂部 ▲爆彈도락크 名星의레·숀도氏主演 快男兒리막고이氏主演 ▲코롬비아映畵特作全發聲日本版 警官車十一號 ◇一月三十日晝間부터特別封切 土、日、祝祭日만晝夜二回 始映午一時·밤七時半 大衆料金十錢奉仕 旣久待望中에잇든三大名畵一時堂堂上映! 嚇嚇한光의大豪華陣
新富座 電本②五一七 新堂町 ◇파라社超特作全發聲日本語解說版 하바드少將南極探險 바드少將及探險隊一行의記錄映畵 ◇後藤映畵社超特全發聲映畵 時代史劇荒木又右衛門 全十卷 監督—加藤柳美氏 嵐寬壽郞氏 ◇一名(女民) 西部망 크活劇 멕키시코G멘 ◇三大豪華版大封切! ◇파라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一月三十日부터每日晝夜二回 晝一時 밤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上二十錢均一 階下二十錢
ワカゲキ 潟風(?)…
日本語版ニュース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國際ニュース パラマウント發聲 東日、大每
▲花火の街 小林重四郞、竹久千惠子 深水藤子、瀨川路三郞
▲紅天夢 P、C、L日活合同作品 ウイリーフリッチュ(二役) ケーテゴールド主演
一二十八日より大公開 晝夜三回

060360

頻繁한 市內의 放火事件
少女의 雪忿毒焰 一日에 兩次放火
卅一日體府町怪火正體判明 警察에서 罪狀自白

시내 체부정(體府町)일백이십팔번지 권태경(權泰卿)의 집행랑 정규창(丁奎昌)의 방에지난 삼십일일 아침여섯시 사십분경에 발화되엿스나 곳발견소화하야 큰일에는 이르지 안헛다 그런데 또 가튼날 오전열시경에 가튼번지의 집에사는 신만수(申萬秀)의 집부억에서 또불이 나서 한참동안야단법석을일우엇스나 다행히 빨리끄고말엇다 이와가티 한집에서 하로동안에 불이두차례나 낫슴을이상히 녁이고 종로서에서 철저히 조사한결과 체부정일백이십칠번지 권태은(權泰殷)씨의집에서 어린아이보는 김일매(金一梅)(一七)란 소녀가 방화한것이 탄로되여 곳본서로 붓드러다가 엄중취조한결과 전기 신만수의 아우 신우균(申祐均)(七)이와 김일매가 약일주일전에 싸홈을하엿는데 그때에욕먹은것을 분하게생각한 김일매는 그분푸리로 그와가티 그집에두번씩이나 불을질른것이라고 자백하엿다한다

二歲때天涯孤兒로 남의집雇傭사리
犬猿間의隣家總角侮辱밧고 憤감에放火로復讐

전기 김일매(金一梅)(一七)는두살때에 그부모가구몰하고 이래 천애고아로 살아오다가 일곱살때에 현재의주인 권태은(權泰殷)씨에게구원을바더 그집어린이를보아주면서 오늘날까지 살고잇섯는데 가튼동리 일백이십팔번지에사는 신우균(申祐均)(七)은 모시분배달부로서 평소부터 김일매를 놀리고학대하야오든바 약일주일전에도 신우균이가 김일매를보고 화냥년의딸이라고놀리고 이에반항하는김일매를 두들겨주엇스니 완력으로는 도저히 대항할수업는것을깨닷고 마츰내그와가티 하로에 두번이나 불을질러서 원한을 풀랴하엿스나두번다실패하야 큰일에는 일으지안코 말엇다한다

新築中의消防署 來七月에는竣工
八層大建物로設備도完全

방금시내태평통(太平通)일정목에 신축중인 경성소방서(京城消防署)는 이제 그공사가차차진섭되여 오는칠월에는 그준공을보게되엿다 그건축은 연평이사백평이고 팔층의 노픈건물로서 그공사비가 약륙만원이상에 달하리라한다 지하층은 난방실(暖房室)이고 일층은 십여대의 소방자동차를 수용할수잇는 차고(車庫)와 소방수의공소(控所)가되고 이층은사무실 삼층은 훈수실(訓授室)이고 사층이상이망루(望樓)가된다고한다 더욱이 새로히구입하는 자동식사다리 자동차와 함께 여러가지 완전한설비안에 이백여명의 민활한소방수가 대기하게되여 시내각소방수파출소 출장소와 소방원소들과 협력하야 시내의화재를완전히 방어케되엿다고한다

被捉된두전군

삼십일일 오후 열시에서 익일오전두시까지 부내태평통(太平通)이정목 암본진일(岩本辰一)의 목재 건조장에서 청엽정(青葉町)일정목일백팔십삼번지 리영수(李英洙)(三○)외 세사람이 투전을 하다가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엿는데 판돈이 십이원가량되엿다고한다

酒商이大金紛失
現金千圓과千圓짜리小切手

삼십일일오전한시부터 가튼다섯시십오분 사이에 부내 황금정(黃金町)칠정목 일백삼십사번지 술과 간장판매업 복전옥(福田屋)상점에서 안방 양복장속에 너어두엇든 현금 일천이원사십전과 천원소절수를 도난당하엿는데 소절수는 삼십일일 오정목에서 발견되엿다고하며 본정서에서는 방금 범인을 엄탐중이라고한다

鬱陵島에大火

【一日警務局着電】지난 삼십일일 오후팔 경상북도 울릉도남면 도동(慶北鬱陵島南面道洞)어업조합(漁業組合)숙직실에서불이나서 창고한채 주택두채, 공가한채 합네채를 전소한후 오후십시반에 진화하얏는데 손해는 일만오천원가량이며 원인은 방금 조사중인데 인축의사상은 업다한다

電車에老婆重傷

삼십일일 오후네시십분쯤에 부내광희정(光熙町)일정목 일백오십번지거주 송갑용(宋甲用)(三二)이가 경전(京電)구십오호를운전하고 마포방면에서 서대문방면으로 질주하든중 부내공덕정(孔德町)이백이십삼번지압지점에서 공덕정(孔德町)에 거주하는 리씨(李氏)(六○)를 치우개되여왼편손목과 오른편다리를 부상당하엿는데 근처 금강병원(金剛病院)에다리고가서 응급치료를 하엿스며 완치까지는 일주일은걸린다한다

阿峴町凍死屍

일일 오전열시쯤에 부내아현정(阿峴町)직업학교(職業學校)압전차정류장 압헤잇는재목점(材木店)구내에서 주소 성명불명의 조선인 남자일명의 동사시체를 정동에 발견하야 소관파출소에 계출이잇섯는데 시체는경성부에 회부하엿다한다

칠쟁이時計賊

일일서대문서에서는 현저정(峴底町)삼백륙십구번지에 현주(現住)를 두고 [illegible] 모 리영룡(李永龍)(三一)을 검거하야취조중한바 그는 시내각처로 도라다니면서 시계다섯개를 훔친것을 자백하엿다는데 여죄도 만흘듯하야 계속취조중이라한다

二十萬圓豫算으로 洛東鐵橋를新設
舊鐵橋는人道橋로使用? 三浪津馬山間을連絡

철도국에서는 소화십이년도 예산으로 공비약이십만원을드려서 삼랑진(三浪津)에서 마산(馬山)으로가는경전남부선(慶全南部線)의락동철교(洛東鐵橋)를 새로노키로 되엇는데 새철교가완성되는때는 구철교는내무국 토목과의 의향에따라 인도교로사용케할방침이라한다 현재의 철교는가교한지도 오래되엿고 근년에 홍수를자주만나 상당히 부후하엿슴으로 개수할필요를 늣기게되엿것이라고한다 이철교가 걸려잇는락동강은 강폭원이넓고 래의 나루배로서 통행하든요인데 구철교를인도교로 사용하게되다면 삼랑진으로부터 진해(鎭海)창원(昌原)등지로 왕래하는교통은 훨신편리하게될것으로 예상된다

電車自轉車衝突

삼십일일 오후다섯시반쯤에부내 앵정정(櫻井町)전차정류장부근에서 부내사근정(沙斤町)일백륙십사번지김봉학(金奉學)(三二)이가자전거를타고가다가 떠러지든 그때바로 약초정(若草町)에서앵정정(櫻井町)방면으로 가든 경(京)일백삼십이호전차에 부드처서 허리(腰部)에 전치약이주일을요할상처를 입엇다한다

新募?中止? 三校一體引繼?
崇專에서는學生大會

【平壤支局電話】미순회의 실행위원장 소열도(蘇悅道)씨는 삼십일일밤 비밀리에 평양으로와서 일일오전열시반 평양서양인 학교기숙사에서 평양교구선교사회를 극비밀리에 열고 문제의 숭전, 숭중, 숭의세학교에대하야 최후적결정을 할것인가 조선인 경영자사이와 말이되여오는 삼교일체로인계조인에대하야 획정 최후적결정을할협의를 진행중인데 도선교회에서 얼마전에 조선인 경영위원회에 설명한와가티 금춘신학기학생모집에관하야 목되다 을할것인가 크게 주목되고잇다 이와동시에 숭전에서는 일일오전열한시부터 본관대강당에서학생대회를 개최하엿는데 때가때인만치 학생들의 동행도매우주목되다

싸이드카-와 自動車衝突

삼십일일오후려시 십분쯤에 부내 원정(元町)일정목 구십번지압지점에서 곽창문(郭昌文)(二○)의 운전하든 룡산자동차부경(京)구백십륙호와 권덕만(權德萬)(二○)의 운전하든 경전(京電)싸이드카-가 질주중 정면충돌을하야 상방이 약간파손되엿다는데 싸이드카-는 피해가 심하고 자동차는 피해가심상원이엿다고한다

跋扈하는鼠賊

구명절을압두고 부내각처에서 잡절도가 번발하는요지음 좀도적도 한목보겟다고 발호하고잇다

▲삼십일일 오후여덟시쯤에 부내 강기정(岡崎町)이십일번지 산전불이웅(山田不二雄)외집이층에 사람업는 틈을 타서 어떠한괴한이 드러와 시가십원의 양복한벌을 절취도주하엿고

▲삼십일일 오전세시삼십분쯤에 부내 원정(元町)삼정목 일백칠십삼번지 리태수(李泰秀)(三○)방에 어떤자가드러와서 유기대야 시가팔원짜리를 절취도주하엿고

▲삼십일일오전열시삼십분쯤에 부내 대도정(大島町)의 호떡식당 주인 좌고오일(佐古五一)(三四)방에 어떤괴한이드러와서 시가구원어치의 회중시계한개를 절취도주하엿다

▲삼십일일 오전열시쯤에 부내 강기정(岡崎町) 삼십사번지 후등(後藤)방에 [illegible] 전중직재(田中直在)(三○)외 우친(義友德)(三○)외 러명의 [illegible] 칠원어치를 어떤자가 절취 도주 하엿다는데 [illegible] 계속 취조중이라한다

京城軌道從業員 百四十名動搖
賃金引上要求提出

삼십일일 아츰동대문(東大門)밧과 뚝섬(纛島)사이를 운전하고잇는 경성궤도주식회사 (京城軌道株式會社) 화물려객차장 열네사람은 위험수당(危險手當)일원을 일원오십전으로 인상하고 월례수당(月例手當)상원을 증가할것과 차장이원수를 증가의대우개선의 요구조건을 회사당국에 제출하얏다 그리하야 이것을바든 회사당국자는 당황한가운데서 그선후책을 강구하고잇스나 만일 이요구조건을 들어주지안는때에는 전기차장을 비롯하야 전종업원 일백사십여명도 파업의형세를 보이고잇서 그추의가대단주목되고잇다

無恩給의面職員도 共濟機關을新設
各道地方費其他에서財源捻出 退職後와患難에豫備

전조선각도 읍면(邑面)직원들은 몃십년동안을 재직하야도 은급이업는 제도임으로 이들퇴직후 또는환난 기타경우를 구제하기위하야 충청남도(忠南)이외 십일도에서 각각 그 구제기관을 설치하고 구제사업에 종사하야 오는 중인데 이재원은 도지방비가운데서 약간식 염출하는것임으로그 예산의 부족을 늣기게 되는형편인데 총독부에서는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전조선각도 읍 면직원 공제회를 설치하야 그들구제사업의 완벽을 기하고자 방금 그계획을 세워가지고 착착진행중이다

在滿醫療機關擴充

남북만주(南北滿洲)각지에 산재한 조선동포를위하야 총독부에서는 매년예산을 세워가지고 의료(醫療)교육기타각방면으로시설하야오든바 금년에는 오만삼천원의 예산을 례년보다 증가하야 각현성(縣城)(조선으로치면읍내)에 촉탁의(囑託醫)배치를 증원하고 보통학교를 증설하며 각농촌에는 수의(獸醫)도 배치하야 우역마역등 예방기타에종사케할터이다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滿洲서七七七粍을보이고 이로부터 나자저은 朝鮮及日本內地로 기압이 잇다 半島의氣壓配置는 不規則하고 小低氣壓은 琉球四國에 압바다 樺太의西部에잇다 北滿은晴 南滿及朝鮮은曇 北東岸에는 降雪이잇다 琉球諸島及南九州에는雨 裏日本은雪 其他는曇

豫報 今夜는 曇小雪 明日도曇少雪

昨日最高 ○度六
同 最低 ○下七度八
今朝最低 零下六度八
今日正午 零下度一

朝滿氷上對抗畫報 上은熱狂되競奏、圓內는一萬米에新記錄지은金基滿 下는優勝한朝鮮代表軍

朝滿對抗 氷上競技終幕
强敵滿洲軍을壓倒 榮冠은朝鮮軍에
續出한新記錄으로完全制覇 兩軍得點은49對42

【鴨綠江에서本社特派員高鳳裕發】우리빙상경기계에서대항전으로서의가장 오랜력사를가진 조선(朝鮮)과만주(滿洲)의 대항빙상경기대회는 지난해부터 남자부에한하야 경기규정을달리하는동시에 조만광빙상련맹이주최하기로되여 그 제이회대회는 지난삼십일일오전 열시반부터 압록강(鴨綠江)철교오편빙크에서 장렬한막이열리엇다 동양에잇서서 스피-드스케-팅회발상지이자 수만관중 제적중에 릴배출시킨 아래내외 회전연(天然)링크에 전개된 쟁패전은 량호한 컨디순에서 추격바다 러 근래희유의격전을연하드니 전통을 자랑하는 만주군의 맹장 박윤철(朴潤哲)군이 오백메-톨레-스에 사십륙초팔의 동대회신기록으로 제일위를 차지하니 련패의쓰린경험만맛보든 조선군은 이에또한 초조한빛이보이드니 이옥고 오천메-톨레-스에드러가 우리의보배 리인원(李仁源)군이 일주사백메-톨코-스의별프라임과시십사오초의군일한백-스를주파하야 소요시간 구분지오초로 작년동대회에서 군이작성한구분사십칠초칠을 실로이십삼초칠을 단축하는 신

전세는역전(逆轉)하야 일천오백메-톨레-스에잇서도 리인원군이단연두각을 나타내이고 이분삼십삼초의 신기록으로 일착하야 득점은 삼십사대 이십구로 조선군이 리-드하니 우승을 좌우할 일만메-톨레-스는 비인틈업시 후망을 친드시 둘러싸은 수천관중의 주시속에개전되엿다 단대명의 멤버-로서 전만주의 정예 열한명의대군을 대하게되니 리인원, 김기만량군은 결속적으로 행하는 전종목에 출장케되여 피로할대로 피로한량군과 신의주고보의투장 김건회(金健會)군이 비장한결의를 품고 일만메-톨레-스에 림하야 악전고투끄테 김기만군이 만주의 우도(牛島)군과동주하다가 일주남짓하게 떠러트리고 십팔분오십칠초팔이란 경이적 신기록으로 우승하엿다 이기록은 조선최고기록인 김정연(金正淵)군의 십팔분이초칠에는 잇지못하나 압록강은반휘비롯한 조선아니서는처음으로 작성된 십팔분대의 기록이다 이상과가티 전종목에조선인선수가 모조리 수위를 그나마신기록으로 제패하야 만장의기염을토하얏다 이로써조만량군의 득점은 사십칠대삼십칠로 조선군의 승리는 결정적으로되여 마즈막종목인 삼천이백메-톨릴레-는 제이진으로대전한바 조선군이 력전해스나불리하엿다 아리하야량군의 총득점 사십구대사십이의 일곱점차로 조선군이 대망의 우승을 획득하엿다 이 개가를 부르니 때는 오후네시반 동대회회장 삼(森)씨로부터만철총재(滿鐵總裁)기증의우승배는조선군에게수여되니 역사적경기의막은 원만 도석하리에 다치엇다

【男子五百米】(세파레-트) ▲A組 1朴潤哲(滿)四六秒八(同大會新記錄) 2金聖奎(朝)四九秒 ▲B組 1金基漢(朝)四七秒 [illegible] 1三代(滿) 四七秒三 2李仁源(朝)四八秒 【順位】1朴潤哲(滿) 2三代(滿) 3金基漢(朝) 4李仁源(朝) 5金聖奎(朝) 6阿部(滿) ▲得點滿洲十二、朝鮮九

【女子五百米】(세파레-트) ▲A組1今村(滿)五八秒四 2前田(朝)六六秒五 ▲B組1壹岐(滿)五六秒三 2孫仁實(朝)一分一秒 ▲C組1江島(滿)五四秒六 2鶴谷(朝)一分一秒一 ▲D組1木谷(滿)五六秒七 2栗田(朝)一分一○秒 【順位】1江島(滿) 2壹岐(滿) 3木谷(滿) 4今村(滿) 5孫仁實(朝) 6前田(朝)

【男子五千米】(세파레-트) ▲A組1金健會(朝)九分四三秒三 2安達(滿)九分四八秒 ▲B組1金基漢(朝)九分二○秒二(同大會新記錄) 2木谷(滿)九分五五秒 ▲C組 1李仁源(朝)九分一五秒(同大會新記錄) 2中楯(滿)九分三○秒五 【順位】1李仁源(朝) 2金基漢(朝) 3中楯(滿) 4金健會(朝) 5安達(滿) 6木谷(滿) ▲得點朝鮮一四 滿洲七

【女子三千米】(오픈·코-스) 1江島(滿)六分一九秒四 2壹岐(滿)六分二一秒一 3木谷(滿) 4今村(滿) 5村上菊(滿) 6村上節(滿) ▲孫仁實(朝)은 第一週에 앗갑게도 너머젓다가 最後까지 奮鬪하얏스나 江島孃을 비롯한 滿洲選手에게 一週를떠러저꼴에 드러왓다

【男子千五百米】(세파레-트) ▲A組1三代(滿) 二分二九秒九 2金聖奎(朝)二分四四秒九 ▲B組1朴潤哲(滿)二分三四秒五 2金基漢(朝)二分三五秒六 ▲C組 1李仁源(朝)二分三三秒七(同大會新記錄) 2石塚(滿)二分四○秒七 【順位】1李仁源(朝) 2朴潤哲(滿) 3金基漢(朝) 3三代(滿) 5石塚(滿) 6金聖奎(朝) ▲得點朝鮮一一 滿洲一○

【男子一萬米】(세파레-트) ▲A組1濱(滿)二○分九秒四 2金健會(朝)二○分一○秒 ▲B組 1李仁源(朝)一九分四八秒四 2朴潤哲(滿)途中失格 ▲C組1金基漢(朝)一八分五七秒八(同大會新記錄) 2牛島(滿)二○分二二秒 【順位】1金基漢(朝) 2李仁源(朝) 3牛島(滿) 4濱(滿) 5金健會(朝) ▲得點朝鮮一三、滿洲七

【女子一千米】(세파레-트) ▲A組1今村(滿) 二分九秒 2渡邊(朝)二分二六秒二 ▲B組 1壹岐(滿) 一分五九秒 2孫仁實(朝) 二分一四秒二로走破하엿스나 코-스를 잘못드러 失格하엿다 ▲C組1江島(滿)一分五五秒七 2鶴谷(朝)二分一四秒五 ▲D組 1木谷(滿)一分五四秒九(同大會新記錄) 2栗田(朝)二分二七秒一 【順位】1木谷(滿) 2江島(滿) 3壹岐(滿) 4今村(滿) 5鶴谷(朝)

【三千二百米릴레-】▲1滿洲팀(石塚 安達 三代 朴潤哲) 五分二三秒五(同大會新記錄) ▲2朝鮮팀(鄭庚彦 柳赫來 金聖奎 李仁源)五分四六秒 ▲得點 滿洲六 朝鮮二

【女子千六百米릴레-】1滿洲팀(今村 壹岐 木谷 江島)三分一一秒七 2朝鮮팀(孫仁實 前田 渡邊 栗田)三分五一秒七

【總得點】朝鮮四九點 滿洲四二點

하키-戰績

(鴨綠江에서 三十一日高鳳裕發電) 朝滿氷上對抗大會의 番外競技인 滿洲와 京城의 對抗하키-戰은 三十一日午後二時부터 鴨綠江링크에서 行한바 結局 六對二로 滿洲軍이 勝捷하엿고 京師對 安東中學戰은 一對一의 無勝負로마치엇다

滿洲 6 (2:1, 3:0, 1:1) 2 京城
京師 1 (1:0, 0:0, 0:1) 1 安中

어떠케하든지 中學校만은 卒業해야한다 事務餘暇에

世上은知識의戰場이다。무엇을하든지中學程度의學力은잇서야한다 中學校에通學하지안는者는 速成中學講義錄으로 獨習하라 會長은天下에名聲이놉흔 中學校長 遠藤博士 敎授法은本會獨特한直感式알기쉽고、滋味잇는講義로學校에가는一個月의 費用과一個年 短時日에中學全科를獨習하게된다 詳細는이제곳『朝鮮日報에서보앗다』하고 說明書를보내라고 東京市神田區三崎町 帝國中學會로 葉書로申込하면見本附說明書를無代進呈

當身은 片紙를 술술쓸수잇는가 요사이 新時代에 適應한新講義를쓸수잇게한다。短時日에片紙를잘쓸수잇게한다 詳細는지금곳 「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 東京神田區三崎町手紙研究會로 葉書로申込하면說明書見本無代呈

合理的이고 興味잇는 習字法 ペン字熟達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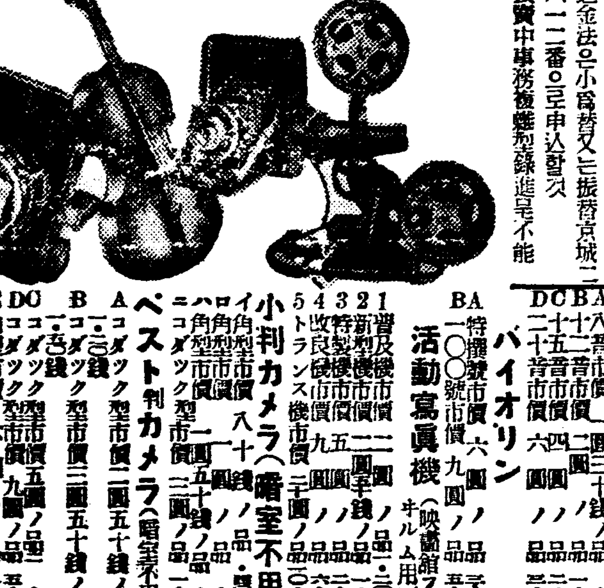
ペン字熟達은 就職에는第一必要條件으로、速寫式練習法에依하면、容易하게筆法은整正하고短時日의練習으로漢字나英字나數字나 金會簿를잘쓸수잇게된다 지금곳 朝鮮日報에서보앗다 詳細한說明書를無代進呈한다。說明書를보내라고 葉書로申込하면 東京市神田區三崎町二丁目 ペン習字研究會

유명추탕 京城崇仁町一九九
各種酒類 都散賣商 舊正初도休業치안함 兄弟酒店 電光 三-一〇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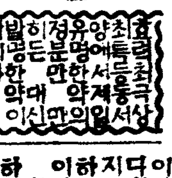
商標登錄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 二一五九

大投賣急告 左의各種을整理하기爲하야 投賣함 投賣期間中이라도 數量에限이잇슴으로品切되는것은絕對로謝絕함
◆註文에對한規定
▲代引注文은三割以上의先金을要하고內入金업는注文은一切謝絕함
▲運送法은鐵道便또는郵便等을明示하고運賃은賣買要함
▲送金法은小爲替又는振替京城二四六一二番으로申込할것
▲投賣中事務複雜키錄進呈不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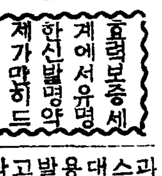
返金自由 注文品이不合意한때는即時交換又는返金自由
演奏用各種 最新ハーモニカ (イ ロ ハ ニ ホ ヘ ト 各種複音 市價 [illegible])
高級卓上ピアノ (A B C D 各種 市價 [illegible])
バイオリン (A B 特撰 市價 [illegible])
活動寫眞機 (映畵館ヲキルム用) (1 2 3 4 5 市價 [illegible])
小判カメラ(暗室不用) (イ ロ ハ ニ 市價 [illegible])
ベスト判カメラ(暗室不用) (A B C D E 市價 [illegible])
ブロニー判カメラ(暗室不用) (1 2 3 4 市價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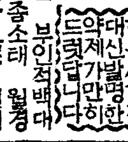
不良한때는交換又는返金
發賣元 大洋社直輸入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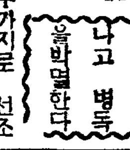
보음보약 젊어지는데 가제일 카이제리 KAIZERI



폐병 부족증 늑막염에 나오페리가제일 NAOPERI



림질 대하증 냉병에 구로벨이 제일 KUROBER



매독엔 푸로데리가제일 PROTERI

약을써보시고 만일 무효면 어더한 책임이든지 집니다
發賣元 京城府西大門電車停留場前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結核患者와 榮養療法에對하야

京城授恩町 前全一堂醫院長 金秉勳

結核患者는普通人以上의榮養을必要로하는데反하야消化機能은大體로衰弱해지는것임으로 適當한滋養食料를撰擇함과同時에胃腸을强化식히고 榮養補給의完璧을 期할만한 藥劑를 撰擇하야서、綜合으로 治療하는것이 가장 理想的療法인것이며 이藥劑撰擇에 對하야 나는『蔘茸精』을推奬한다

勿論人蔘과 鹿茸이라면 古來로 神秘的補强의作用이잇다하야 實用함은外라 最近의 新醫學上으로도 此를 證明하며 世界에 널니 자랑하고잇는것이事實이다 그런데나는 이蔘茸의 價를體驗하고자 하여 數種의蔘茸劑를服用하여보아도 別로히 期待以上으로 特別한効能을엇지못하엿섯스나 偶然히 朝鮮商會에서 製劑한『蔘茸精』을 服用한 結果 놀낼만한 效果를體得할수가잇섯든것이다

엇던結核患者를勿論하고 結核患者는大槪로 普通人以上의體溫量을必要로하는故로 適當한榮養價値의 食物을 可及的으로 多量攝取케하는것이 조흔療法의하나이다 그러나 消化力을 無視하고 過食이나 或은偏食을 遂行하야오히려 惡影響을 주기쉬운것이며特히 注意할것이며 飮食物撰擇에잇서서도 榮養價가 豊富하고 消化되기쉬운流動食을 攝取할것이며 新鮮한野菜·果物等을 適當히攝取하게함이 조호다 特히 腸結核이나 腹膜結核에잇서서는 本來가 下痢症狀을 못하는 關係上 刺戟性食物은 絶對로 避할것이며 鷄卵이나 牛乳도 下痢를誘致키쉬운故로 먼저는 胃腸의機能을根本的으로强하게하야 消化吸收力을 助長식혀할것이다

그다음 肺結核에잇서서 刺戟性食物을除한外에는 消化力이許諾하는限 食物의量을制限할必要는업다하나 過食이나偏食은絶對로禁해야 할것이다 以上에도述한바와가티 一般結

爲先 첫재로 胃腸을비롯하야 全身의 生活機能을强化케하며 榮養素의消化吸收力을增進식히며 睡眠이充分하여저서起床後에淸新한愉快味와 食慾의疲勞를感하지 안는等의 諸現狀이 本劑의奏效를 證明하는것이다 그리하야나는結核患者는勿論이고 慢性胃腸病者、神經衰弱者、病後期、榮養不良兒、産前産後等患者에게도 恒常此를服用케하여 莫大한效果를엇고잇는것이다

이로써보면本劑는 特히人蔘鹿茸의精分에다가 有機性鐵劑等의 數種高貴新藥强壯劑를 巧妙히配合한故로 各有效成分은 互相助長하며 合同的으로作用하는데에서 人蔘鹿茸도 그神秘的眞價를 發揮하게됨이 안인가 생각하는同時에 이『蔘茸精』을一般에게 널니 推奬하는바이다

◎月經不順도 자최업시사라저

永興郡新興里 金明燁

나는今年三十七歲된女子이온데三十三歲에일즉이 斷産을하고 經度가 不調하든것이 蔘茸精을먹고經度가 골라저서다시 受胎할希望을가지게 되엿습니다

一般病弱者 神經衰弱者의 家庭治療

京城武橋町 內科小兒科專門 平和醫院長 禹錫龜

精神을過度히使用하는學者、學生、技術家、政治家、商業家等이나 또는 手淫、房事過度하는者 或은 急性이나 慢性傳染病後에 身體虛弱한者는 神經衰弱症에 걸니기쉬운것이니 神經機能이 異常히 興奮도하며 疲勞하기쉽게되는것이 本病에 特性이라 患者는 精神作用에依하야 頭痛、頭重、眩暈、不眠症等이 생기며 凡事에記憶力이鈍하여 지고感情의障碍로因하야變心키쉬우며 憤怒키잘하고恒常 마음이鬱鬱하야 悲哀에빠지수기우며 讀書、或은 行步할時에는 容易히 疲勞를感하여 神經痛과 偏頭痛이併發되여 心悸亢進과 心動不整이되며또한 生殖器에도 障碍가 되여 夢精、早漏、精神的陰萎가되며 消化不良症、便秘口渴、多尿多汗等諸症狀이 發生되나니 이러한 病症으로 苦悶하는이는 먼저 그의原因을 除去하는 同時에 身神을 安靜히하고 起寢과食事를 規則的으로行하여야 될것이다

飮食物에잇서서는 첫재로消化하기容易하고 刺戟性이 업는滋養食物을 適當히 攝取할것이나 本病은 大槪로 全身的衰弱과消化機能障碍로 因하야 胃腸이弱하여지기쉬운것이니 아모리조흔營養食物이라 할지라도 消化吸收할能力이업다하면 무엇하리요 그런故로 胃腸의 機能을 根本的으로 强化시키여 榮養素의吸收作用을 敏活하게하며 恒常榮養素의不足한 部分을 補充시키여서全身的活動能率을增進시키는同時에 高速度로補血强壯强精作用을하는 『蔘茸精』을 服用하는것이第一緊要한것이다

即自然과親하고 規則的으로攝生하며 滋養食物을取하고『蔘茸精』을 服用하야써 비로소完全을 期할수잇는 療法인것이며 實로 更生의歡喜를맛볼수잇는것이다

本劑는世界的으로 가장오랜歷史를所有하엿스며 漢方에萬補作用을한다는 人蔘과鹿茸의精分에다가 優秀한新藥補劑를合理的으로配合한製劑로서 엇던蔘茸劑보다도가장卓越한效能을 나는일즉이 여러患者에게試驗하야 認定한故로이『蔘茸精』을 本院의專用藥으로指定하엿슬뿐外라 一般에게널리推奬하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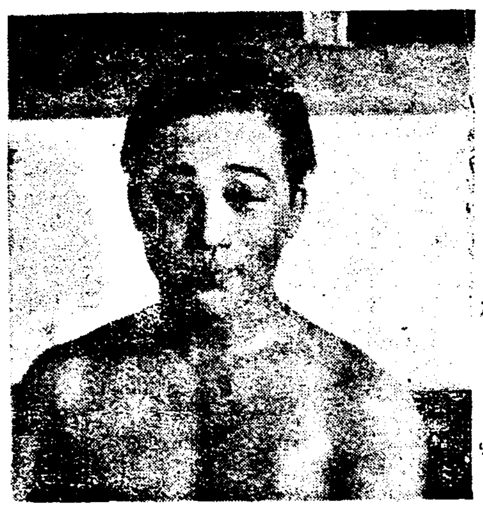
年滿八十에 更少年되어

醫生 吳玹錫

本人이 年滿八十에 神經이 衰弱하고 氣力이 疲困하와『蔘茸精』大一瓶을 服用하온後로 血分强壯하고 氣力湧出하야 有更少年之實効하오니 藥品中『蔘茸精』이 第一眞的有効하므로 此를 證明하는同時에 널리 勸告하는 바외다.

가는길에잇는 運動家諸君께

徐廷權



나도 『蔘茸精』을 愛用한다 廣告와 틀님업는것은 내가 服用한 事實로서 自信잇는 補血强壯劑蔘茸精을 推奬한다 特히 疲勞한때에 一杯야 말로 元氣를 百倍나 도와준다 그런故로 나는 恒常이 蔘茸精을 愛飮하는同時에 가는길에잇는 運動家諸君에게 勸하야 마지안는바이며 그實效잇는것을 내가여러분게證明하며 推奬하는바이다

病後恢復期에好調는 놀낼만한速度를보여

醫學博士 松岡寅夫

나는일즉이『蔘茸精』의好評을듯고此를實驗키爲하야 諸種患者에게試用한바體力恢復의迅速함을認定하엿다즉 小兒의貧血、榮養不良、發育不全、腺病質의虛弱者等이나 老人性衰弱、精力減退나病後恢復期結核患者의衰弱、食慾缺乏等에應用하여卓越한効驗을보앗다 特히病後恢復期에好調는놀낼수밧게업고 누구나服用키便하며人蔘獨特의芳香과美味에모다贊成하엿다

躍進無敵! 斷然人氣大集中

◎廣告를잘하는藥이조흔藥이안이라

實効를證明한藥이조흔藥임니다

十一大醫學博士實効證明

醫學博士	松岡寅夫先生
醫學博士	小村榮三先生
醫學博士	今村豊八先生
醫學博士	李甲洙先生
醫學博士	金夏植先生
醫學博士	朴昌薰先生
醫學士	仲尾次景榮先生
醫學士	金永默先生
醫學士	金光鉉先生
前全一堂醫院長	全秉勳先生
平和醫院長	禹錫龜先生

人氣集中하는理由

●보시요! 効力第一을말하는 이證據를!

●本商會에서 蔘茸精을 發賣한지도 임이五個星霜 昨今에至함엽시 大衆의支持와 賞讚을 밧어왓사오며

●그간에 제아모리 別々廣告術策을써서 제가第一이라고 떠드는藥들이 續出하엿스나 이蔘茸精만은 언제나 꾸준하게 獨步的으로 宣傳本位를 써나서 効力本位로만 勤々努力하여오게되엿스니

●一般服藥者들은 이藥에서 저藥으로 갈피를 찻지못하고 속아만보다가 結局은 比較하여 써본結果로 果然 蔘茸精의効力이 第一이라는 事實을 發見하게되자 同時에 눈물겨운 感謝狀이 踏至하게되엿스며 補藥界의 人氣는 斷然 蔘茸精으로 集中되고 만것임니다

●本商會에서는 벌서부터 이것을 豫測한 事實이오나 一般 愛用者諸賢씌서 이蔘茸精에 對하야 正當한 理解와 證明下에 推奬하여주신것을 特히 感謝하여 마지안슴니다

丸製補藥의 缺點을고치어

丸劑는大槪로胃腸에서溶解하기가困難함으로液體補藥만큼効力이迅速하지못한것

二、丸劑는大槪로乾하기가쉬운故로衰弱한胃腸病患者는쓰지못하는것

三、以上의모든缺點을고치기爲하야液劑로한것이本藥의特色입니다

高速度補血·强壯·强精新藥 老年還童 蔘茸精

◎萬金을주어도살수업는당신의健康을蔘茸精단한병으로맛볼수잇습니다

우리조선사람에게맛는 補藥은 무어니무어니해도 人蔘과 鹿茸의 純全한 精氣로 만든 蔘茸精밧게업습니다

一摘千金의이價値

◎藥에는 貪富나貴賤이 업습니다

◎三尺의 童子라도 能히 그價値를認識할수잇는 人蔘과鹿茸압헤 虛弱한身体의 所有者로서 降服하지안을者 뉘가잇스리요

◎太初에神農氏가 人類에게 세치신遺業이 이것이며 秦始皇帝의 求하시든 不死藥도 이것임니다

◎現今에이르러 京城帝國大學의 杉原博士와 露西亜의 싸쌰롱크兩博士의손에 分析되여 補藥中 世界第一이라고 證明한것도 人蔘과鹿茸입니다

◎蔘茸精은 漢藥中에第一인 人蔘鹿茸에다가 洋藥中에第一인 數十種의新强壯劑를 理想的으로 巧妙히配合하엿스니 補藥中에第一인것도 틀님업는事實입니다

◎그런故로 一滴千金의 이價値를 알어주는이는 百病이두렵지안코 老年還童의歡喜를 맛볼수잇습니다

어느모로 뜨더보아도 秋毫의 缺陷이업시 完全唯一한 液體補藥은 오직 이것뿐

이러한분은한시라도 밥비약을쓰시요?

○氣血이不足하야얼굴이蒼白한이
○精力이衰退하야手足이厥冷하고下焦가濕한이
○肺尖カタル肺結核으로因하야盜汗、發熱喘息等으로苦悶하는이
○心臟이弱하야恒常숨이갑부고疲勞、倦怠를感하는이
○神經이衰弱하야頭痛、頭重不眠症으로苦生하는이
○慢性消化不良症으로飮食이잘 내리지안코 가슴이 쓰리고 압흐기도하며꿀꺽꿀꺽소리가나는이
○過飮過色으로因하야全身이衰弱하여진이
○心身過勞로因하야早老한이
○月經不調로걱정하는이
○重病後恢復期에잇는이
○榮養不足한小兒
○産前産後에虛弱한婦人
○히스테리에걸닌이
○其他一般病弱者

▲醫學博士及斯界有力者의特別한推奬文

▲京鄕各有名病院專用藥指定

▲踏至하는先服者의感謝狀

이것만으로蔘茸精이補藥中第一이라는것을넉넉히證明할수잇스나以下의五大事實을具備하지못하고는第一이못되는것임니다

錠劑蔘茸精

事務를보시는이나 旅行하시는이들이 携帶服用하기에 便利하기爲하야 蔘茸精을 그대로結晶식히여粉末로써 製劑한蔘茸精錠이잇사오니便利하신대로 利用하여주십시요

藥價

蔘茸精	
二五〇瓦入	三圓
五〇〇瓦入	五圓

錠劑蔘茸精	
一五〇錠入	一圓
三五〇錠入	二圓
五一〇錠入	三圓
九〇〇錠入	五圓

五大事實

一、醫學的事實

蔘茸精은人蔘과鹿茸의純全한精氣를抽出하야그우에다가最新洋藥强壯劑를配合하엿슴으로人蔘은主로補陽、益血하는同時에恒常人體榮養素中不足한部分을補給하며、鹿茸은角尾反應에依하야補陰、安胎增血作用을하는데다가、人體의活動素를주는最新强壯劑의삐타민A、B·カルシウム·アミノサン·ホルモン等의諸成分이서로有効機能을助長하야實로治療、益壯의作用을遺憾업시發揮합니다

二、販賣事實

以上에도말한바와가티宣傳本位를떠나서効能本位로만研究努力하는故로服藥者로不知中宣傳되고傳播되여每日가티殺到하는注文과、山積한出荷가이事實을證明하여주는것임니다

三、感謝狀의事實

蔘茸精을服用하고서効力본事實談과感謝狀、推奬文이踏至하는데그內容을보면大槪가여러가지로廣告잘하는다른藥에속아서엇던이는數百圓式金錢을虛費하고도病은곳치지못하다가이蔘茸精단한두병에곳치엿다는눈물겨운事實談이만슴니다그러고모르고속는이는할일업거니와이러줄아는이는이蔘茸精만큼의事實을具備치못한藥은絶對로安心하고쓸약이못되는것입니다

四、醫學博士의實驗

엇던藥치고効力이아조업는藥은업슬것이며아조안되는藥도업슬것이요、感謝狀도잇슬수가잇습니다、그러한故로以上의三種事實은어느藥이나普通으로가질수잇스되적어도醫學博士의實驗例와特別한推奬文을가지지못한藥은完全唯一하다할수업는것이니이蔘茸精이야말로十一大醫學博士諸氏께서 各其手腕을다루어가며解剖하고實驗하야서證明한推奬文을가지고잇습니다

五、各有名病院에서指定한事實

이蔘茸精은實質的으로効力本位의藥으로서到底히追從할수업는內容을具備하여잇슴으로京城에全一堂醫院과平和堂醫院을비롯하야京鄕各有名病院에서專用藥으로指定하게까지되엿슨 이蔘茸精임니다

京城府授恩町二十二番地

朝鮮商會新藥部

電話光化門(3)一七五八番 · 振替京城一〇三八六番

아츰

여드름도 한때나

고ㅣ운 얼골이 두껍이가치

짜거나비벼서는얼근자죽이난다 감쪽가치치료하는법

멋처럼 꼿다운 청춘을 조그만 여드름으로 인하야 안술프고 안타깝게 지우시는 젊므신네가 하나가 아니요 둘이아닙니다。얄밉게도 여드름이란 물건은 한참 피어오르는 이십내외의 젊므신네에게 제일만히생기는 것이라 고합니다。여드름만 생긴대도 뭐할텐데 그것이 생기는 데 따라서 얼골에 열이 오르고 분이 먹지를안습니다 그래서 분으로나마가려 보려고 바르고 또 발럿자 알록달록 얼룩이가 저서 도리어 꼴숭업게시리되고 맙니다。그러라고 너무 애를 태우지는 마십시요。섭생만 잘하게 되것 가트면 그여시 아조 안 나올 것은 아니오리다。

무엇보담도 주의할 것은 먹지로 업새라고 짜고 문지르는 그 것입니다。그리케 하는 결과가 도리어자극을 주어서 점점 더 커지는까닭으로 오히려 영구히 그자국을 남기게 될뿐입니다。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요 그리고 딴방법으로 고칠 도리를 생각해 보십시요。정히 심한때는 물에어떠한 독소(毒素)가 잇는 관계니까 의사에게 진찰을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그다지 심하지안할 때는 음식물을 가리어 먹어서 자연치료를 도모하여야 합니다。음식물로는 우유나 과도 적당하고 야채 등속은 무어나 해롭지 안흔데 서양사람들은 우유를 만히 먹기때문으로여드름이 적은 말로 보아서 그중에서도 우유가 제일조흔 모양입니다。

×

화장을 하실때 콜드·크림은 애초부터 금물입니다。반늣이 가루비누나 풀질이 조흔비누로 세수를 한 뒤 배니싱크림을 발러야만 합니다。분을 바르시려면 고동색에 가까운 비츨 취해서는 배니싱크림에 잘석거서 바르십시요。그우에다가다시 분방망이를 가지고 곱게두드립시요。그리고 소위 진한 화장은 절대로 쓰지못합니다。진한 화장일싸록더욱더 현저하게 드러나 보인답니다。그러다가 밤에주무시지를 안습니까? 그때는 전부 말가케 씻어버리고나서 알콜성의 화장수(化粧水)만을 발러 둡니다 만일 나저 하든 화장을그대로 두지 안습니까? 여드름이 업서지기는커녕 도리어 자꾸 더 심해 가서나종에는 얼굴전부가 여드름으로될니다。

×

물론 정신이 피곤하거나 몸이 피로한 것도 곳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될수잇는대로 그러한 심신의 과로를피하는 것이 맛당합니다。그러나 혈기가 비야호로 성하고 신경이 극히날카로워 잇는 젊으신네로그런수의까지야 너무나 무리의 주문입니다만은 단지여드름이아니라고 하더라도그맘때의 과로는 여러가지로 주의할 필요가 잇습니다。여드름 보담도 더 한층젊으신네의 얼굴을 부시어리는 죽은깨도 심신의 과로로인하야 심해지고 또미의 큰 요소를 이루는 혈색도 심신의 과로로 인하야나빠지게 됩니다。

굴껍질의 쓸모

굴껍질은 말리어서 약으로도 쓰고 또다리어서 수정과나 식혜가튼데도 너코 여러가지로 쓰이고 잇습니다 만은 그이외에도 뎌만히 쓸수가 잇습니다。

(一) 말리어서 곱게 가루 커피처럼 끌는물에 타고설탕을 너허서 차로먹는것

(二) 세수ㅅ물이나 목욕물에 너코 다리면 아조 냄새가 조와서 하고나서까지 살에 배는것

(三) 말리어서 곱게 갈아가지고 고추가루와 석거서 깍두기가튼것을 담그면 비츤 곱고 맵지는 안코도 맛도 그럴듯 한것

주방에도공황시대!

작구 오르는 시세 걱정되는 찬까

그러나 웬만한 경험만 잇스면 흥정은 이러케 싸게 할수잇다

물건을살때는 갑시싸고 나진물건보다 갑시 빗산조흔 물건을사야할것입니다 용적에대하야부족할지라도 불가불 조흔물건이라야 갑시도리여 싼셈이니 돈이 부족하면 조금만 살지라도 비싼물건이 싸게사는세음인까닭이다。

그이유를말하라면 위선갑산물건은 우리의식품으로 불지라도 첫재영양가티가 부족할뿐아니라 갑싼물건은 오래되여 썩어상하엿서 고려치아니하면 오래되여 퇴색이되엿거나 또는태양이나공기로인한 화학적작용으로그 본질의맛을 이러버린 딴물건이되거나 혹은 일기라든지 그무손관계로 산지로부터 만히수출이되여 방금시세가 떠러지는물건입니다。이러한 모든관계를생각하면 더군다나 식료품에대하야는 갑시 빗싼물건이 도리여싼물건이되는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아모조록 품건의 호불호를 감정하는상식을 배워가며늘 여야할것입니다。

물건을살때 호불호를무간치못하면 언제든지 속기 쉬운것인즉 여러방면으로 조흔 물건에 품질이 엇더라든지 색갈이 엇더라든지 아러두어야할것이다。요사이 만이먹는김(海衣)으로말하면 우리김으로 불지라도 봉지에 하동(河東)이니 광양(光陽)이라고 쓴것이 조흔것이고 또그등수로 불지라도 송자(松)표가 상등품이고 그아래로는 죽자(竹)매자(梅)여러가지가 잇는것입니다 그색갈로 말하면 보통검은것이 조타고하나 원색으로말하면 자, 흑, 녹, 남(紫, 黑, 綠, 藍)네ㅡ색갈이 으면중 비치여야 정말조흔김이다 또는 몸이얇고 손으로만저 밋그럽고 말리 조직된선(線)이 일직선으로 고르게되것이라야 조흔것입니다 이김으로불지라도 감정을 할때에는 위선 산지가하등 송자표 색갈 이상멧가지만 기억하야두면 언제든지 조흔김은 속지안코 살수잇는것입니다

둘재로는 가게부(家計簿)나 매물장(買物帳)을 매일해가는것이 필요한데 무슨물건을 사든지 전일에 산든갑슬 알고 사려면 무엇이나 시세이외에 엄청나게틀리지아니할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저울과 되를 집에 사 두어야 내마음대로 다러볼수잇스며 무엇이나 속지아니할것은 정한일일것이다 뿐만아니라 늘 살때마다 달고되여보기시작하면 얼마후에는 습관에의하야 모든물건에 용적 분량을 잠간볼지라도 무엇은 멧근 멧되라는 기억이 사려지지아니 하게되는것이 만습니다。

멧가자 예를들면 쌀한되에 삼백칠십이몸메 갓장한되에 오백칠십몸메 술한되 사백팔십몸메 고초장한되에 오백사십몸메입니다。이상멧가지는 물건이 조흘수록 중량이무거운것이니 이러케 우리는 상식적으로라도 아러기억되는것이 필요합니다。

셋재로는 무슨물건을 사든지 여러곳에 무러보는것이 필요한 중에도 여러사람에게 뭇게되는 동시에 알려고아니하여도 그원갑슬 알게되는까닭으로 싸게살수잇는것입니다。

요사이 흔히 팔러다니는 비옷으로 불지라도 이러한 생선은물론 날마다 시세가 틀리는 것이나 가령 먼저 한사람을불러 무러보면 스무개한두름에일원팔십전을 달라고하거든 한ㅡ절반구십전만바드라고하야 볼것입니다 정직한상점에서 정당한 리익을보기 위하야 정가표를붓치여 논것이면 별문제이지만은 우리의행상하는 사람들중에는정직한 상사치도잇겟지만은 더군다나도업시 물건갑슬 달라고하는 사람도 만히잇는까닭으로 도저히 그사람의말만 미들수업는경우가 만히잇습니다。이러한까닭으로 는그갑시 드나들것입니다。이러케하야 구십전부터십전이나 십다가 결국일원사십전에 산다면 이비웃두름 원가는일원이상십전에 틀리지아니할것이나 그러타하면 물건을 내집까지 배달하야주는사으로 불지라도원가로 사먹는세음이고 그장사는 겨오 배달삭바게 되지아니하는 이익을보는것입니다。그다음으로는외상 즉 한달세음한다든지 두달세음을하겟다하고 흥정거래는 매양부득이한 사정으로그리되는것이지만은 이것은큰철히 일할이나이할은 빗사게밧는것입니다。이에대하야는 빗싸게될바게업는것이 아모리정직한 상점이라도 엇지할수업는것입니다 첫재 상점주인으로보면 물건을현금으로 팔면 그파는돈으로 파는대로멧번이든지 작고돌라써물건을 사서판다면 한달동안에 얼마나되는이익을 볼러이지만은 한번롱장에실리여가저간뒤에는 적어두 그돈회수가 한달을 걸리는고로 한달동안은 죽은돈이되고 그뿐 아니라 아모리신용잇는가정이라도 돈을매매바 바드면 그대라도 지내여가겟지만은 그이상 여러날을 드리어가는수가만흔즉 이모든것을생각할때 엇지하야빗싼물건을 사먹게되는가를 여기에서도 알수잇습니다。

(朝鮮料理研究所 洪善杓)

女對女

終點에서 終點을갈팡질팡

기분으로부르는 "오ㅡ라잇·스톱!"

상냥한분맛나면한결곱다

새벽부터 밤늣도록 수만흔녀자를 대하고잇습니다 가정부인을 비롯하야 저와가티 일터에나가는 여자며 학생까지 면명으로 헤아릴수업습니다

차를타는 사람중에 제일밉살스럽기는 물론남자입니다。마는 녀자로서보는녀자도 기막히게딱한일이 한두가지가안입니다。

구식가정부인네는 차를타면너무겨식을 모르고 자기가나릴정류장을 지나와서 에그머니 지나왓스니 차를정거시켜달라고날뛸때는 정말기막힙니다。

그리고 아이를 중개중개다리고와서 엇절줄모르고 쩔쩔메는 여자손님은 대개가 신식여자로서가정부인입니다。신식부인네는 자기가어데로 나갈때는 반듯이 아이를 집안에 잇는대로 모조리 다리고나서는것이 자랑인양 시픈 모양입니다。마는 저들로볼때는그다지 조흔일이못됩니다 첫재그여러사람이 밀고닷고하는 틈에서자기몸도 추신을 못하면서아이를 간수가어떠케되겟습니까 그때는 하는수업시 저들이 아이를돌보아주어야겟는데 들어데 그만한여가가잇습니까 어떤사람은 아이는전부남편에게 맛겨두고 자기는 편안히 자리에안저 남편이안고잇는 아이를 귀엽다는듯이 어르고잇스나 저생각에는 어린애는 여자가 맛터가지는것이 조흘것갓습디다 하로에도 몃번식 이노릇을 떠케하나하고 딱한한숨이제절로 날때가 잇습니다。

그것은 가튼여자의몸으로서 한 사람은 돈을내고 차를타는손님한사람은 표를파는차장이란차이에서 나왓던지 좌우간 사람을 너무깔보고 리유도당치안케 욕들을할때는 눈자욱이 훈끈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여자는 대개 지식을가젓다는 신여성들인데 이럴때는 다시돌녀생각하야 도로혀 깜보일때가잇습니다 새지식이잇다면 이만한 사리를 모르고 날뛸때 너는나보다 더 무식하고 사리를모르는 사람이다하고 속으로 욕을해버리면속이 시원해집니다

양장을불하고 입술에루ㅡ주칠을하고 연지를찍고 털이숭개숭개한 구두를신고 머리를지진모ㅡ던껄은 차에발을 올려노흘때부터 벌서 미워집니다。그아페가서 여찌지못해 차표를 찍으라고 고개는숙이나、속이빠히드러다 보입디다 그러한 여자는대개자기와가티 사치하게차린남자와 가티탑니다。

이바게개를넙고 차에 오르는 여자도 잇습니다 돈이잇서서 하는짓이라 무엇이라고 못하게할수는업스나 사랍도못다는차에 개까지 태인다는것은 조곰어색하게생각납디다。

제일친절하기쉬운 여자손님은 그래도 직업여성입니다 은행이나회사에다니는 사람들은 순하기짝이업고 친절히대하여줍니다 여학생을 대할때는 그저부러운생각바게는 나지안습니다 어려서 가치보통학교에 다닌동창생들이 상학시간이나 하학하고차를차게되면 그들이밝겨하면할사록 터부끄러워지고 부럽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시치미를떼고인사도 하지안코 그냥차를나려가는 동무도잇는데 이러한동무를 대할때는 그저분하고 그다음에는 차운우습이 제절로 나옵니다。

눈에 무엇이 드려갓슬때

봉산수(硼酸水)나 식염수(食鹽水)에 씻는 것이 제일 조코 그대신 정한 냉수도 관게치 안습니다。봉산이면 오십배로 물에 타고 식염이면 백배로 물에 탑니다。우리 조선서는 흔히 젓을 짜서 너키도 하는데 그역시 해롭지안호나 젓대신으로 우유를 쓸수도 잇습니다。또 박하를 눈꺼풀에 발러서 눈물을 쑥빼으면 그바람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일 좀커다란 물건이거든 다른사람더러 눈꺼풀을 뒤집고 정한수건으로 훔처내게해도나뿔것은 업습니다。단지손으로 훔처 내서는 재미적고 수건도 정한것이 아니어서는 도리어 해를 보지말란 법도 업습니다。하여튼그러케 꺼낸 뒤에는 눈을 한번 씻어서 소독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그소독은 역시 아까 말한바의 붕산수나 식염수입니다。

그런데 우유나 쇠ㅅ가루가튼어가서는 동자를 상할위험이 잇습니다。눈을 손수건으로국 싸쥐고 곳의사에게로 가야합니다。또돌뭉이뛰어 들어갓서도 조치 못합니다。헌겁이나손수건에다가 냉수를 축이어 눈을 싸쥐고 점문의에게로 가야할박게 업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산류(酸類)라든지 썩는성질을 가진 알카리의 약품이라든지 또 더구나 리질균이때 공연히 자기대로 어떠케 하려다가는 도리어 병을 키우게 됩니다。

어린차지

『눈사람』

인형두 방에서 자는데
눈사람너도 방에서 자거라。
안된다。
그럼 부억에 재울까。
안된다。
그럼 광에 재울까。
안된다。
화롯불이나 갖다주령。
안된다。

(글쓴사람 곽정옥)

短篇小說 抗進記 (6)

金廷漢 作 鄭玄雄 畵

그러나 금번도 며칠 낫치안헛다。앙칼기만 꿋나면 제비처럼 떠나는 그다。

두호는 하얀 고무신안에 옐시잇게 가무어잇는 영애의 로실토실한 맨발에 어느듯 일종의 애달품을 느꼇다。

그는 영애와 마조서서、손차게 주린두어에게 추진 뺑돌니 닥어주면서도、마음만은 늘 다른 곳으로 끌리기 쉬웟다。

『영애씨!』

『왜요?』

영애는 눈을 꿉게 뜨며 처다본다

『대엔 어제쯤 가시려우?』

두호는 짐짓 천연스럽게 못는다。

『누에 다오르면 곳가지오。』

『왜그리 속히 갈려고해요?』

『그럼 뭐볼일이 잇서야죠?』

영애는 담스럽게 릉릉한 손을 민첩하게 움직인다。

『그래도 좀 쉬여가시지요。』

『안돼요!』하고 영애는 도리질을 하며

『어머니께서 퍽으나 기다리시는데。』

『하지만 한(二三)일쯤이야 어떼요。금년은 오신길에 이곳 산수라도 좀 구경하시고……。』

두호는 말에 정신이 팔려서 닭근 뽕니풀 도로 팡주리속에 놋는다。

『이러케 장마에 찌들리고서구경은 무슨 구경을 해요。』

『그럼사록 등산이라도 해서울연한 마음을 한번 풀어야지오 망운산 성터에 올라가면 제법 놀만해요。구비구비 압강물이힌 띄가티 굽어보이고、뻑국새도만히 울지오。더구나 이런 봄철에는 그럴듯 하거던요。』

두호는 아무려케나 내버려둔 수염이 보얍게 불숙불숙 자란 터을 쉴새업시 떠죽거린다。

『하지만……。』

『왜요?』

『모두 그런팔짜가 돼야조?』

팔짜란 소리에 두호는 약간 몽글하면서

『그럼 업는 사람은 산구경도 못한단 말이오?』

『그래도 마 다음 기회로 미루지오。』

『안돼요!』

『정말?』

영애는 아미를 밧작 들고、사내를 처다본다。그의 눈은 빗낫다。

영애는 늙은 과부의 고명딸로서 장래에[illegible] 꿀도 미상를 것스나、생활의 우연한 인연으로、꿈을 물으든 두호에기 아롱한 꿈을 주엇슬뿐아니라、자기도 역시 두호의 그 씩씩하고 현실적인 태도에는 어떤지 사내다운 힘미터움을 느꼇든것이다。그리고 가끔 꽃속에서도 두호를 보앗다。

그러나、두호의 마음속은 중분히 초탁하면서도 쥐면꺼질까 불면날까하면서 자기를 길은어머니의 생각이 과연 어떨는지 그리고또、아니 그보다 두호의 가정 형편을 생각할때는 어떠케 태도를 결정해야 조흘지 몰랏다。

게다가 또한가지 영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것은 두호의 형 태호엿다。그는 이지음 서울서 돌아온이후 거의 밤나출 몰으고 영애가 기숙하고잇는자기의 칠촌아저씨댁을 차저다니며 기회가 잇는대로 말썽에 쇠살을 해바치며 가까워 지려고 애를썻다。얼른 생각하면 얼바람마진놈 처럼 넉덕스럽고 찰거머리가티 추근추근한 팔이 흑은 실키도 하지만 그래도 사회에 대하야 크다란불만을 품고는 가진멸시와 무리해속에서도 꿋꿋이 자기를 직혀가며고난의 길을 밟으려는 그의 남다른 뜻에는 어쩐지마음을 끌리지 안흘수가 업섯다。그의과로워하는 모양이 애색하기도하고 거룩하기도햇다。그리고 그의 세련된 연사와 거동도부지불식간에 영애의 마음을끌엇다。

두호와 영애는 한참동안 서로 말이 업섯다。지긋지긋한 침묵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염업시 졸려드럿다 오래동안 주렷든 누에들은 소낙비오는듯한 소리를 내면서、늘름늘름 앙칼지게 뽕을 먹엇다。

이윽고 태호가 물아오자 바첫지는 기다린듯이 자결에 문을 열어젓떠리며

『너 엇디갓디?』

하고 첫말부터 다부지게 해던진다。

『건넛마을에요。』

태호도 역시 불통해진다。

『건넛마을에는 밤낫 뭘하려 다니니? 두삼이가 네에비나 되느냐?』

그러나 태호는 아무대답도 하지안코、자정 시무룩해가지고 잠실로 들어온다。물론 두호를 보고도 영애를 보고도 말이업다 오히려 영애가 거기잇기때문에 더욱 상을찡그린다。

기침에 잘듯고 먹기좋은약

TY.K.48

感氣에걸니면

고통이 심한 기침이 나옵니다 마는 그것은 목과 기관의 粘液腺이 맥히거나 말느는때문에 그럿케 기침이나오게 되나니 이런때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痰을 속히나오게하여야됩니다。

더구나 기침을그대로 두시면 重한병을일으키기 쉬우니 속히、곳처야됩니다 이런때에 지밋신을 服用하시면 곳낫게되니 지밋신은 氣道의分泌을 조케하고 自然的으로咽喉를축々하게하야 그곳에 붓텃든담을곳나오게하고 기침을곳개이게합니다。

백일해와 홍역기침의 특효약으로 유명한「지밋신」은 먼저 그심한 기침과가래를 모도나오게 하고 속히 병을다스려줍니다。

백일해는 일홍과갓치 오래끄러서 어린애들의게 말못할고통을주나 지밋신을미천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고 진행중에사용하시면 심한발작은다스리며 구토와 쇠약과 무서운예병을방지하고 속히 낫게만들어줍니다。

밧튼기침·천식

치운바람이 부는요새에는 몹시 밧튼기침과 천식이 심한때이오나 지밋신은 조선사람의 체질에 꼭맛는만큼 부작용의염여업시 잘듯어서 밤잠을 잘주무시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병이 승하야 무서운 호흡기병으로되는 것도예방하야주며 다스려줍니다。

어느家庭에도 한병식준비하시사 기침이나거든… 한숙갈… 주무실때에…… 한숙갈식……

사용하시면 잠을잘자게되고 자는동안에 병증세의악화를방지하고 컨쾌를밧을으게하여줍니다

一五〇瓦…一圓
三〇〇瓦…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チミツシン
지 밋 신

中篇小說에 對하야
—그 量과 質的槪念에 關한 試考—
④ 崔載瑞

그러나 이 作品의 興味는 이야기거리그것만에 잇는것이아니라 이야기를 傳하는作者의 手法에도잇다. 이야기는 作者自身의 追憶가운데에 나타나잇다. 그過去란 中學時代의下宿生活로부터 「東」京留學生活을 거처 또다시 京城서 社會生活로드러가게까지의 가장多感하고 變化만흔時期이다. 作者自身과그의親友의生活은 實로姜書房內外의運命과 서로얼키어잇다. 이리하야 모든이야기가 追憶의 안개에가리워잇슴으로 그러치안허도甘美한이야기가 더욱哀愁를 띄우게된다. 이것이作者의 겨운바가아닐까?

그러나作者自身의 過去追憶과 姜書房內外의 이야기의進展과는 이作品에잇서서 別다른要素이다 이두가지要素를統一하기위하야作者는만흔 애를썻다. 作者는 한때에 이女子에對하야 가벼운사랑을느꼇고 또는 그들生活의傍觀者가되여왓다. 그러나作者는自己의過去를 追憶하는 情調에잠기여 이야기의進展을 이저버리거나 或은 그를떠나서 脫線입는 에피소-드를 끌어내는수가 만타. 이것이 長篇이라면 말할때업다. 主人公의性格을徹底히 「發」展시키기위하야그 때그때의 에피소-드를 一一히들어올리는것도 조켓다. 그러나 比較的制限된形式으로써 單一한 觀念이나 情緖를 取하라는中篇에잇서서 함부로生活斷片을 暗示만해두고만다는것은 부질업시散漫한感을 줄危險이 잇다.

四、展開與變化「情熱記」

이小說이 『朝光』十一月號에처음發表되엿슬때에는中篇小說 『情熱記』(上)이라하얏고 그다음 十二月號엔 長篇小說——(中)이라하얏고 今年正月號엔 『中篇小說(三)』이라하얏다. 그리고 正月號에 이야기가 끗나지안허서 二月號에 또連載되리라고 期待하얏드니 新聞廣告에도 이小說은 나타나지안헛다. 이리하야 무엇이 무엇인지 대중할수업시 되엿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이小說이 三回以上은 連載되는 中篇小說이라고 밋고십다. 現在까지의 分量은 四十頁이다.

이小說은 不運한 시골어떤 無産兒童學院에서 物質的困難과싸워나가며 公立學校에지지안는 教育을하여보려고 애쓰는 青年教員의 거룩한 情熱을 「傳」하라는것이 目的이다. 物質的報酬도 적을뿐더러 모든 設備가 不足한데다가 元來素質이 떠러지는 애들을 가지고 남에게 숭떨리지안흘만한 運動會를 열어보려고 몃번式이나 코피를 쏘아가며 쓰러지면서도 一路目的에 猛進하는 이 熱血漢에 對하야선 위선 人間的으로 尊敬치안흘수 업다. 그는 무엇보다도 意志가 굳은 性格으로서 우리아페 나타난다.

이小說의 興味는 스토-리보다도 人物들의 性格描寫에 잇다. 學院經營者의 手腕은 업스면서도 잇다금식 公金을 橫領할 慾心만은 가지고잇는 늙으레이 가튼 學院主 비록 小使라는 賤職엔 잇슬망정 學院을 爲하야선 발벗고 나서는 義俠心과 正義感을 갓고 더욱히 無慾心한 性品과 동키호-테的 果斷性으로 말미아마 洞內의 귀염까리가 되여잇는 文書房等 輪廓이 鮮明한 性格들이다. 이것도 短篇으론 能히 하지못할 일이다.

이小說엔 性格描寫外에 또한가지 注目할 要素가 잇다. 그것은 主人公 영세의 困境을 救하기 위하야 「運」動會練習을 援助하려고 나온 女性孝嬪이다. 小說이 끗나기前이니 무엇이라고 斷定할수업스니 두사람 사이엔 벌서 희미한 情愛가 交流되고잇다. 結局 戀愛에까지 進展되지안흘가? 何如튼 이 女性의 出現은 偶然的이라할가 多少의 不自然感을 준다. 적어도 作品前半의 寫實的인 筆致와는 어울리지 안는 感을 준다. 그러나 冷笑하는 이 女性의 出現으로 말미암아 沈痛한主人公의 生活에 보드라운비치를끼게되는 同時에 讀者에게도 적지안는甘味를끼처준다. 이것이亦是作者가 現實描寫外에 역시感情의高揚을 期待하고 잇다는意識—讀者는 —을가지고 잇기때문에 생긴結果가아닐가? 이作家가 늦으는短篇과 現在『四海公論』에 連載中인 長篇小說『公證者』를 比較할때 나는이中篇意識이라는 것을 指摘치안흘수업다. 作者自身의 藝術的良心을 버서나지안는 同時에 讀者의 興味도 될수잇는대로 滿足시키라는 努力—勿論 無意識일는지 모르나—그러한 跡을우리는看過할수업다.

『晚景』當選祝賀會 —本報新春[illegible]에 當選된 [illegible]人인 戲曲『晚景』의當選祝賀會는 지난二十九日午後五時부터市內百合園에서열렷다

現代歷史哲學의 回顧와展望
③ 鄭 賢 奎

우에와가튼 [illegible]한 哲學的基礎우에서 『歷史』(生起로서의)라는말과 『文化史』라는 말과 『精神』이라함은 다가티 市民社會에 잇서서는 것스롭이엇시 막바꿀수 잇섯든 한개의要求의三樣의表現이엇든것이다 『歷史』와 『文化』와 『精神』과의 사이에 이가튼

關係가 成立되엿스매지금까지 『歷史』와 멀어보이던 現實的社會의 歷史와 文化史, 또는 絶對精神의 發展史가 손쉽게 聯結이되엿다. 即 現實的社會의 發展史는 곳 絶對精神의 發展史다. 이곳에 새로운 한가지問題가 提起되는것이니 即 現實的社會의 歷史는 果然 絶對精神의 發展인가 다시말하면 現實的社會와 絶對精神과는 다가티 同一한範疇 即 存在의範疇라든가, 意識의 範疇라든가 하는 이런範疇中 어떤 同一한範疇에 屬하는것인가, 이것은너머나 明白한事實이다. 現實的社會는 意識이아닌 存在의範疇에 屬하는것이오 絶對精神이라는것은 存在가아닌 意識의範疇에 屬하는것이다. 即 現實的社會의 發展史는 絶對精神의 發展史, 人類精神史로서의 文化史가 아니다. 結局 以上과가튼 原理에서 理解된 人類精神, 文化史는 思想의 將內에잇는 歷史, 即思辨的 思惟의 生産史에 지나지안는다 이리하야 이가튼 原理에서 現實的社會의 發展을理解하려는 文化史의 第一次의

計畫은 失敗에돌아가고文化史를 다른原理에서 理解하려는 第二次의 計畫을세우게되엿다.

이와가튼 文化史의 第二次計畫은 먼저 思辨的思惟의 生産史에서 現實的存在로 돌아와社會를 自然의 一部로보고 社會에도 自然科學的法則性을 認容하야 社會의 自然實在를 措定하려는 方法論的一元主義가 그것이다.

方法論的一元主義

物質主義的歷史觀과 實際主義的歷史觀에 反對되는 文化史的方法論이 近代社會의 史的理念을 代表하는 한개의史的方法論인것이며, 近代社會初期에 超個人的意識을 通하야 文化史를理解하려든 獨逸觀念論的歷史哲學과 史的理念論이 그가튼 思辨性때문에 現實的社會를 具體的으로 把握할수 업섯든것이매 그가튼 思辨性을 止揚하고 社會를 自然實在로 把握하려드는것이 文化史의 第二次의 計畫인 英國 『마쉬-스러』學派中心의 方法論的 一元主義다. 現實的社會를 自然의一部로보고 歷史에 自然科學的方法을適用하며

社會를비로소 自然實在로 把握한 方法論的一元主義는 實로 史的方法論에 잇서서 처음으로『歷史科學』이란것을 發見하엿든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이가튼點即從來의 文化史의思辨性을 止揚하엿다든가 社會를 自然實在로 把握하엿다든가 처음으로 『歷史科學』을 建設하엿다든가, 하는 이가튼點에 잇지안코 그들이말하는 새로운意味의 文化史란 果然 現實的社會를 具體的으로 把握할수 잇섯든가 歷史科學方法論이 問題가되고 在來式의 英雄詩에서 史學을 救出하야 歷史科學을 建設하려는 提唱이 擡頭되든때에 그에서 提唱되는바 歷史科學이 一무슨 形式論理우에 立脚한 『마쉬-스러』學派式의 自然科學가튼 그런意味의 科學으로 理解되는 例가 만흔데 이가튼 意味의 歷史科學이란 果然 現實的社會를 具體的으로 把握할수 잇는것인가 하는 이런問題가 좀더 論議되여야 할것이다. 實로 저멀리 十九世紀中葉以來 今日에 이르기까지 史的方法論을 中心으로한 激烈한論戰은 簡單하게 말하면 이가튼問題를 中心으로한

論戰이엇다 『람프레히트』를 中心으로한 一元主義學者들의 方法論的 一元主義에 對하야 『리커트』『빈델반트』가튼 學者들의 方法論的 二元主義가 對立된 論戰이 곳 그것이엇다. 그런데 問題는 이가튼種類의 方法論的論戰에 參加하엿든 哲學者든가 歷史家들이 그저할일업시 이런論戰에 參加하엿거나 또는그네들이 現實的으로버리고잇는 論戰이 마치바늘끄테 天使가 멧마리나 올라안즐수가잇는가하는 이런스콜라的論戰이 아니라 이런論戰에 參加한그네들自身이 直接으로 告白하고잇는것처럼 그것이 한개의政策 한개의世界觀 한개의社會觀의 對立을 意味하는것이라면 前者即 歷史에 自然科學的法則을 適用하려든 方法論的一元主義는 어떤 現實的意義를 가지는것인가. 即 方法論的一元主義는 왜 自由放任主義의 『만체스터』學派의 史的方法論이 되는가 까꾸루 왜 十九世紀後半까지 自己外의 過程을 거친 이가튼社會는 우에서 본것처럼 社會를 自然의一部라 보며 自然科學의法則을 곳바로 歷史의 法則으로 認容하는 이런方法論을 마련하는가.

一隨筆一 病床迎春記 (四)
金 裕 貞

계집애나만치 잔상도 하려니와 요즘 나의病으로 因하야그는 몃달 동안을 學校도 못갓다. 그리고 뒤를 바터내랴, 세수를 씻겨주랴, 湯藥을 대려오랴, 이러케날더르는 赤心으로極盡히 看護하야 준다. 그의 誠意만으로도 넉넉히病이 나앗스련만 왜 이리 끄느냐. 나의 조카는 참으로 고맙다. 이病이나으면 나는 그에게 무얼로 이 恩惠를 가플런인가. 가끔 이생각에 홀로 잠기다가도 及其也엔 너머도 無力한 自身을 씁쓸히 冷笑하야 던지지 안흘수 업는것이다. 그 대신에 나의조카의 盼附이면 그러케 안하여도 조흘수잇는 理由를 갓고라도 그대로 잡잡이 盲從하고하는것이다. 이것이 그恩惠를 생각하는 나의 唯一한 報答이겟다.

恩惠뒤의 밥맛이란 바루 모래 씹는 맛이엇다. 그러나 조카의 命令이라는 까닭만으로 꿈울꿈울 기어나오면 방한복판에 어느듯 저녁상이 멍그러케 노혀잇다.

一밥을먹는것은 眞情으로 귀찬다. 어떠케 안먹고 사는道理가 업는가. 이런 病理를 하야가며 눈을 감고 안저서 꾸역 꾸역 떠넘긴다. 그러다 여플 돌아보면 조카는 나의 食卓行動에 어이가 업슴인지 딱한視線으로 이윽히 바라보고 잇섯다.

이러케하야 僅僅히 저녁을때오고 卷煙하나를 피우고나면 이어서 밤이든다. 밤, 밤, 밤이 온다. 별이 조흔것도 아니요 달이 조흔것도 아니다. 그믐漆夜의 캄캄한 밤 그것만이 所用되다. 子正이 넘어 아프로 휘여든다. 그리고 가슴속에 가, 한업시 먼지가 끼인듯이 매캐하고 답답하야 듣은다. 기침發作의 前兆이다. 미리 豫防하고자 폐을 가만히 노코 冷水를마시어본다. 深呼吸을 하야본다. 卷煙을 피어본다. 그러다가 慌忙히 터저나오는 기침을 어찌할수 업서, 쿨룩어리다가는, 結局에는 그자리에 가루 느러지고만다. 어구머니 가슴이야, 이 가슴속에 무엇이 들엇는가. 날카로운 칼로 한번 빼거나볼는지. 몸이 아프면 아플스록 나는 어머니의 생각. 하나 업기를 多幸이다. 그는 당신이 나아노은 자식이 이토록 못생기게스리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便히 잠드섯다. 만일에 나의 이 꼴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프려니. 하면 업기를 不幸中 多幸이다. 한숨을 휘, 돌리고 눈에 고엿든 눈물을 씻을때에는 기침에 昏昏하대로 다뵌 뒤엿다. 웅크리고 안저서 다시 卷煙에 불을 붓티자니 이게 웬일일가. 灌腸이 나올때도 되엿을텐데 입때 無事한것이 암만해도 수상하다. 便秘가된것이 아닐까. 아까에 灌腸미리 靈藥을 먹은것이 음씨 後悔가 난다. 便秘 便秘 무서운 便秘. 痔疾에 便秘는 極히 危險하다. 痔疾로 말미암아 여섯달째 苦生하야 오는나이니만치 萬一의하나를 念慮안할수업고 終乃는 下劑를 사도록 하얏을런지에 너을때까지 마음이 노히지를 안는다. 이걸 먹엇스니 낼아침에는 설사가 터질것이다. 한번 터지면 줄대서 나올터인데 그럼 그담에는 무슨 藥을 먹어야 올흘는지—

이러다 보니 時計는 서정이 칠적 넘엇다. 눈알은 보송보송 허니 잠 하나 올듯 십지 안코, 머지안허 먼동이 틀것이다 해가 뜰것이다.

그럼 낼 하루는 무얼로 보내는가?

脫出을 計劃하는 獄中의 罪囚와도가티 한껏 긴장이 되어 善後策을 講究한다. 맑은날 이 땅에 떠질 光線의 威勢를 끼며—

낼 하루를 무얼로 보내는가? (끗)

一漢 詩一

題 晚松
押 松
稱韻 考選

佳作一之六
忠北堤川邑 嚴 基 憲

愛爾亭亭特立松・
常持勁節不爲容・
晚籟噓凉聲有韻・
疎陰待月影方濃・
偃盖停雲看睡鶴・
寒濤入夜聽吟龍・
胡僧消息問童子・
苒苒斜陽青數峰・

漢詩募集

題 新春
押 新
限二月十五日

科學

感情과 消化機能
—그 미치는 影響과 相互關係—
② 金 鳴 善

印度 王族家에 犯罪에 嫌疑잇는사람을 그漢子를 判斷할에는 法廷에 依賴하야 行하엿다는 神話가 잇다 即 그 容疑者로 神聖한 供米를 咀嚼케한後에 無花果葉上에 吐하게하야 그咀嚼한供米가 唾液과 混合되엿스면 無罪者라하고 供米를 咀嚼하엿스나 唾液과 混合되지안헛스면 有罪로 判斷하엿다는것이다 이神話는 果然科學的이라고할수잇다. 即唾液分泌이 感情에 만흔 支配를 밧는것은우리가 日常經驗하는바이다. 例하야말하면 憤怒、恐怖及悲哀等急激한 感情의 變動이잇슬때에는 口腔이 乾燥케되는 唾液分泌이 現著히 減少됨을 證明함이다.

이事實은 有名한 生理學者 [illegible]教授께서 實驗的으로 證明하엿섯다. 即手術로서 唾液腺管을 가진犬에게 飮食을 投與하면 그唾管으로唾液이 流出이 旺盛되는때에 성미사나운猫를 아페보이게하면 흘러나오든 唾液이 갑작이 그치게되는것을 觀察하엿다. 感情으로唾液의 分泌이 停止될뿐아니라 旺盛케되는것도 우리가 日常經驗하는바이다. 三國時代에 曹操가 大軍이목이말러서 行進이 困難하게된때에 머지안흔곳에 푸른梅子가 만히열린 것이잇다는 한마디말로서 목마른것을 업시하엿다 함은 오늘에 科學的으로서보면 참妙한 計數이엿다고할수잇다. 또는 배가고파 출출하엿슬때에 갈비굽는곳으로 지나가기는 結搭하고 조흔 飮食을 생각만 하여도 자窮한 生活하는 學徒들은 자조經驗하는일이다. 水分이 적은 飮食 或은 刺戟性食品을 口腔에 너흐면 唾液의 分泌이 旺盛하여지는것도 生理上으로 잘아는事實이나 이것도 實驗動物에서도 잘알게되엿다 即 犬에게 [illegible]잇는 飮食을먹이면 因하야 唾液은 만히分泌되다 이飮食을 오래동안 먹인 얼마後에는 犬에게 [illegible] 習慣이 成케되며 이러한 時期에는 單純히 [illegible]을 그犬에게 보이기만하여도 唾液이 流出되다 그러다 口腔에 맛잇는 飮食을 너허서 口腔粘膜에 分布한 知覺神經을 刺戟함으로因하야 唾液이 流出함은 先天性으로서 사람이나 犬에 別이업는것이다 이것을 [illegible]氏는 無條件反射라하고 우에말한 實驗과가티 一定한 習慣을 形成케한 犬에게 一定한 條件的 刺戟을 與할時에 唾液의 分泌이 잇게되는 것을 條件反射라하엿다 이 條件反射는 [illegible] 그條件이 消失케되면 消失될 可能性이 有한것으로써 先天性인 無條件反射와가티 永續性을 有한것이 아니다 이實驗은 近代生理學研究에 一新紀元을 지은것으로서 自然科學에 [illegible] 精神科學 [illegible] 領域에서도 重要視케되여잇는 것이다.

「胃液分泌도 唾液分泌과 가티 感情에 만흔支配를 밧게됨도 너무도 확한 事實로되엿다」 이事實을 먼저 研究한이는 어떤 큰大學이나 研究室에서 비롯한 事實이 아니엿섯다 即米國 미쉬간州 北方에 在住하든 이름업는 한陸軍軍醫 [illegible]氏이엿섯다. 當時에 한 靑年이 上腹部에 銃創을 當하야 지금과가튼 外科的治療가 發達되지못한時節이라 腹에 瘻孔이 [illegible]

[illegible]

고 飮食을 먹이면서 食慾이 나아오고 맛이 드러 [illegible] 胃液이 分泌하게되며 이와가튼 實驗을 行할때에 개가 [illegible] 고양이를 보게하면 [illegible] 胃液分泌의 減少 或은 停止가 되고 고양이가 업서지면 [illegible] 胃液이 만히 分泌됨을 證明하엿다.

1936年度 —노-벨科學賞— 受賞者群像 (上)
一記者

一九三六年度 노-벨賞受賞者는 지난十一月十二日 노-벨賞委員會에서 그氏名을 公表하엿다. 그중自然科學關係의 三部門에서 다음의 五氏가 入選되엿다.

(1)物理學賞

「카-르·안더-슨」博士 (Carl David Anderson)

氏는 「칼리포르니아」工科大學의 少壯教授이다. 저- 有名한 「미리칸」教授에게 師事해서 宇宙線을 研究하엿다. 그래서 宇宙線이 空中을 通過하는 痕跡을 「윌손」霧函에서 撮影하는 實驗을 하는동안에 그는 陽電子의存在를 發見하엿다 陽電子라는것은 從來의 陰電子와가튼 質量을가진것으로서 그電氣의 符號는 反對이다 英國의 「디락크」敎授는 「안더-슨」博士보담도 먼저 理論的으로 陽電子의 存在를 豫言하엿스나 博士는 「디락크」敎授와는 全然獨立하여서 實驗的으로 이것을 發見하엿다 今番의受賞도 아마이 發見의 功績에 依한것같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繼續해서 宇宙線의 研究에 精進하고잇다

「빅톨·헤쓰」博士 (Victor Franz Hess)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大學의 老教授이다 宇宙線의發見者로서 그方面의 研究者로서는 先驅者이다 最初 「라듐」「토리움」等의 放射性物質에서 나오는 放射線의 空氣를 電離하는度는 地上으로부터 上昇하야감에 따라서 減少하리라는 豫想을 뒤집고 도리혀 어느程度以上의 高空에서는 電離度가 增加한다는 事實에 遭遇하여서 이것은 반드시 地球外로부터 非常히 透過力의 强한 그무슨 放射線이 내리쏘이는데 原因한다는것을 생각해 내엿다. 그래서 그는 벌서 一九一一年에 無氣球에 依한 高空觀測을 試驗하고서 宇宙線의 性質을 詳細하게 調査하엿다.

口頭試問 問答練習材料 (十一)
—(漢洞公立普通學校)— 金 宗 奎

國史之部

△天孫降臨ノ時天照大神ハ何トイフ御神勅ヲオクダシニナリマシタカ。
▲瓊瓊杵尊ニ「コノ國ハワガ子孫ノキミタルベキ地ナリ汝皇孫ユキテ治メヨ。天津日嗣ノ榮エマサンコト天地ト共ニキハマリナカルベシ」ト仰セラレマシタ。
△橿原神宮ハドンナオ宮デドナタヲオ祀リシテアリマスカ。
▲神武天皇御即位ノ禮ヲオアゲニナッタ宮デ神武天皇ヲオ祀リシテアリマス。
△箕子ハ何處ニ都ヲ定メタノデスカ。
▲平壤ニ定メマシタ。
△三韓トハ何デスカ。
▲馬韓、辰韓、卞韓デス。
△神功皇后ハドンナ方デスカ。
▲仲哀天皇ノ皇后デ熊襲新羅御征伐ニ大勝ナサッタ方デス。
△阿直岐、王仁ハドンナ人デスカ。
▲百濟ノ學者デ內地ニ支那ノ學問ヲ傳ヘタ人デス。
△佛教ハイツ頃日本ニ傳ツタノデスカ。
▲第二十九代欽明天皇ノ御代紀元一二一二年ニ內地ニ傳ツタノデス。
△大化ノ新政トハ何デスカ。
▲勢ノアルモノガ多クノ土地ヲモツテ氣ママニ人民ヲ使ッテキタ習ハシヲオ改メニナリ、コレラノ土地ト人民ヲコトゴトク朝廷ニ納メマセマシタ。コレヲ世ニ大化ノ新政トイヒマス。
△大寶律令ハ何時出來マシタカ。
▲第四十二代文武天皇ノ大寶年間ニ出來マシタ。
△和氣淸麻呂ハドンナ人デスカ
▲第四十九代光仁天皇ノ頃ノ人デ忠義ノ念ノ厚カッタ人デス。
△京都ニ都ヲウツサレタ天皇ノ御名ハ。
▲五十代桓武天皇デゴザイマス。
△空海ハドンナ人デスカ。
▲桓武天皇ノ時 唐ニ渡ッテ佛教ヲ學ブコト三年カヘッテ高野山ヲ開イテ眞言宗ヲ弘メタ人デス 詩文ニ長ジ、イロハ歌モコノ人ノ作トイハレテキマス。
△菅原道眞ハドンナ人デスカ。
▲宇多天皇ノ御代 天皇ノ御信任厚ク右大臣トナリマシタガ藤原時平ノ讒言ニヨリ筑前ノ太宰府ニ流サレ三年ノ後コノ土地デナクナラレマシタ人デス。
△高麗ノ太祖ハ誰デスカ
▲王建デス。

學生作品

一小品一 申看護婦 (下)
晉專 李 鍾 浩

七月 그어느날 비오는날이엇다 日曜日인가한다 비가와서그런지 유달리 이날은 病院에 患者가 적엇다 그래서가 아니지만 申看護婦와 이야기를하는 나는 아래와가튼 事實을 알게 되엇다

申看護婦에게는 두분의따님이 잇다 큰따님은 只今某女高普에 在學中이며 작은따님은 普通學校二學年이다 그의男便은 熱熱한 民族主義者로 三·一運動때에 도만히 活躍한 男兒엿섯다 허나 不幸히 지금 자근따님이 胎兒엿슬제 十二年前에 飄然히 집을 나간 申氏와 어린따님들을 남기고 京城서 世上을 떠나고말엇다. 그로말미암어 적으나마 圓滿하든家庭生活은 깨여저다. 그래서 할수가업서 一時的 어린 따님을다리고 忠北本家로 나려갓섯다 그러나 父母님이 안계시는本家는 너무나 冷情하엿다 그래서 그곳에 一年間 잇다가 다시 두어린따님을 다리고 京城으로올나와 看護婦生活을 아직까지 한다는것이다.

「李先生이니까 내말이지 참으로 兄弟之間도 所用업습디다 自己아우가 사랏슬제 어쩌다한번 나려갈것가트면 참으로 반가이 해주드니 글세그이가 世上을 떠나자 그만 冷待해주더니 할수업서 그대우라면 참아 눈으로 볼수업습디다 오죽해야 난지열人달도되지못한 어린애를 업고 네살먹은애를다리고 서울로올나와것서요 지금도그러치만 그애들을 爲해서 一平生을바칠 作定입니다 그간 여러番도만 헛스나 애를써해 守節을해오깃이지요……」

나는 이 偉大한 朝鮮의 典型的어머니의마음에 다시금 感動치안흘수업섯다

世上에는 自己男便을 버리고 子息을버리고 野獸의 奴隸가되는이가 얼마나 만흔가? 명윤되지안는 看護婦노릇을 해가면서 하나도아니요 둘식이나 工夫를시키는 어머님의 決心! 그러고그뜻을바뎌 熱心히 工夫하는 따님들! 榮華의將來가 그들에게잇기를 빌지안흘수업다

옛날서부터 어머니를 이르되 慈母라하엿지만 一般的으로 어머니의사랑은 입고 아버지의사랑은 嚴하다 어머니의사랑은 感情的이라 無分別이여서 사랑이되 참된사랑이아니라 하여오지만 그것은 當치안흔말이다.

호미도 말이언마르는
낫가티 들리도 업스리이다
아버님도 어이어신 마르는
위덩더둥성 어머님가티 괴실이업세라
아소님하 어머님가티 괴실이업세라

하는 古歌의뜻을 그리고 사람이 少年이나 青年이나 老年이나 모-두 急한地境을 當할때마다 어머니를 찾는理由를새삼스러히 깨닷는 同時에 『과부의·설움은 과부가안다』는意味도 잘알엇다

×

歲月은 如流라고 누구라한말인지는몰나도 名句다. 어언간 여름이가고 가을이가고 겨울이 지새이고 봄이도라왓다

昌慶苑에서는 櫻花가滿發해서 울창안사람들은 夜櫻求景에 精神을이저버린 四月 그어느날이엇다 學校에서 도라오니까 마침 醫師와 申看護婦는 往診을 가고업섯다 食母가 혼자 번에서 방을치리고잇섯다 食母는나를보자 무슨반가운 소리나가려

「申看護婦가 시집을간대요」

「무엇이?」

「글세 申看護婦가 富者人집에 시집을간대요」

食母는 다시 긴說明을 하기始作햇다

그러한말이 난지 몃칠안되여 申看護婦는 O婦人病院을 고만두게되엿다. 나는 疑心치안흘수업시되엿다 그는 나가는날 사방 나를보고

『글세 시집을갈려면 무엇하려 十二年씩이나 守節을 하여왓다는 것이라요 다 그것은 우숩은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O婦人病院을 고만두는것은 永登浦Y病院에서 오라는條件으로 오라니까 가는것입니다 李先生도 틈이 잇스면놀러조니오시요!』

하고 섭섭히 헤어젓다. 그리자 얼마안되어 나도 O婦人病院을 나오게되엿다 自然 消息이 까마득해지다.

언젠가 봄비가잇서 永登浦Y病院을 차저가보앗드니 申看護婦는 그곳에 업섯다 무어시든지 十餘年의 看護婦生活을 淸算하고 새로운 職業을 求하러 갓는데 어디로갓는지 모른다는것이다.

도리켜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無心한 人間이 아니엿든가? 나의 暗黑한 人生觀에 한줄기 光明을 준이가 申看護婦가 아니엿든가? 바람이 지동치듯 부는날도 비가 억수로 붓는날도 눈보라가 뺨을후려갈기는날도 가방을 엽구리에끼고 旅舘으로 下宿屋으로 그主人의 눈초리를마지면서도 다녀야할身勢를 敎해준이가 바로 申看護婦가 아니엿든가? 그러나 그恩惠를 가플길이 漠然하니 괴로운것은 人生事다!

지금은 어데가게시는지 安康을 빌따름이다 —끗—

今春各學校入學規定 ⑦
(但詳細는直接問議하시오)

咸興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試驗日字 自三月十日至三月十二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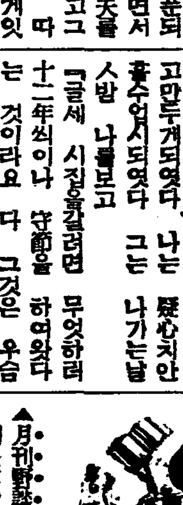
羅南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試驗日字 自三月五日至三月六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新義州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至三月十七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海州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至三月十三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釜山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試驗日字 自三月十八日至三月二十二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

光州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試驗日字 自三月八日至三月十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



▲月刊野談 二月號(內容) 訥齋의 快辯、崔致遠의 出世、報酬、詩調十首 盜賊의 안해、十念의 怨魂 實話=純情의 호떡두개、中國野談=女子의 一念 其他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月刊野談社 振替京城二六三五一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新品 中古洋服類革靴の大安賣
今回ハ特價提供ノ品ヲ一品デモ多ク勉强致シマス

本品ハ官省ノ拂下品

特別拂下 厚ラシヤ巡査服上下(純毛裏付) 特等品 六圓五十錢

下中古品ニテ純毛黑紺色丈夫向品デス
鐵道省拂下品 紺ラシヤ服詰襟上下(純毛中古裏付) 特等品 一着ニ付 四圓三十錢

陸軍拂下 黑厚ラシヤ外套(純毛品) 一等品 二圓九十錢

本品ハ軍隊ノ拂下中古 純毛ニテ厚地ラシヤ大形防寒用

陸軍拂下 茶厚ラシヤ外套(純毛品) 一等品 二圓九十錢

鐵道省拂下品 黑厚ラシヤ兩前外套(純毛總裏付) 特品 六圓五十錢

海軍拂下 水兵黑厚ラシヤ防寒外套(純毛品白ネル裏付) 一等品 三圓三十錢

巡査拂下品 黑厚ラシヤ兩前外套(純毛品頭巾付) 特品 六圓五十錢

電氣局拂下品 黑厚ラシヤ兩前外套(純毛品頭巾付) 特品 四圓二十錢

鐵道省拂下品 紺厚ラシヤ片前外套(純毛厚地總裏付) 一等品 四圓五十錢

郵便局拂下品 黑厚ラシヤ片前外套(純毛品裏ナシ) 一等品 三圓二十錢

軍隊拂下 改造編上靴(中古改造品)
陸軍改造 編上靴 (茶利革) A品 一足 二圓三十錢 特品 一足 二圓七十錢

新品軍隊式編上靴 茶利革 三圓二十錢

新製品海軍式 陸戰隊用黑編上靴 三圓二十錢

本品ハ軍隊拂下ノ中古編上靴ヲ改造加工シ新牛張革ヲ張リ鋲ヲ打込ミ堅牢無比實用品

海軍拂下 陸戰隊用 黑革編上靴 A品 二圓六十錢 特品 二圓八十錢

海軍式水兵短靴(新製品) 黑革 二圓九十錢 茶利革 二圓九十錢

海軍拂下 水兵黑革短靴(中古改造) A品 二圓四十錢

本品ハ海軍ノ拂下水兵短靴ヲ改造加工シタル中古品ニテ底ハ新牛張革ヲ打チ丈夫向品

ハガキニテ御註文下サレバ直チニ代金引替小包デ發リ升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六二一九番 振替名古屋一一五一一番

"平原兒"——파라마운트社作品 게리-·쿠-퍼 진·아-서主演 B·데밀監督

渡米를압두운崔承喜 京城에서告別公演

二月二十日부터兩日間 本社後援으로府民館에서

舞踊家崔承喜女史는 歐洲와米國等地의 招請을바더 世界舞臺에 進出하기로 되엿다는것은여러번 報道하엿지만 渡歐를 압두고 故土를 차저와서 作別公演을 하게되엿다 지금은 東寶체인과의 契約興行으로 關西方面에서 公演中인데 이체인을로 다 마치고는 그길로 곳 서울에오게되엿다 京城到着은오는二月十九日이며 京城에서의 公演은 二十日부터 二日間 京城府民館에서 本社의 後援아래 開催하게되엿다。

今番 公演은 舞踊家 崔承喜女史自身의 飛躍도 飛躍이려니와 朝鮮의 舞踊이 이를 通하야 世界에 웨치게되는 壯擧를 압두고 故土의 支援을 請하는 人事를 兼한것이므로 더욱 意義가 기픈 同時에 벌서부터 一般의 期待와 人氣가 高潮되고 잇다。

今番 公演의 入場料는 二圓 一圓五十錢 一圓이며 夜間만 一般에게 公開하고 晝間은 미리 豫約한 團體入場者에 限해서 入場을 許하기로되여잇다。

그리고 今番作別公演에 올릴 舞踊은 全部가 新作으로서 東京崔承喜舞踊研究所에서 오래동안 研究한創作物만으로되여잇다 昨年봄에 京城에다녀간일이잇는 崔女史는 그동안 渡歐를計劃하고잇섯든만큼 미리부터 自己로서는 充分한 準備를 다한것이다 世界舞台에서 發表하기爲하야 마련해둔 新作들을今番에 全部披露하기로되엿스니 前에보지못하던 大作들이 만흘것이다

崔承喜 渡歐告別舞踊會

二月二十、二十一兩日間(밤七時) 府民館大講堂에서

會費 二〇〇·一五〇·一〇〇

主催 崔承喜舞踊研究所

後援 朝鮮日報社

追放의라인할트 映畵로反抗運動

와-너社와提携하고 新作"단돈"을製作

【伯林發同盟郵信】 第一回 作品『여름밤꿈』을 完成한 歐羅巴劇界의 第一人者 막스·라인할트는 繼續하야 와-너·부로더-스社에서 第二回作品『佛蘭西의暴君 단돈』을 映畵化하기로되여 이準備를 進行시키기爲하야 라인할트氏는 오래동안 佛蘭西에滯在하면서 各方面에서 材料를蒐集하고 잇섯는데 最近 이것이 全部完了되엿스므로 米國에도라와서 撮影에着手하리라한다

『단돈』은 라인할트得意의作品이나 脚色은『科學者의길』『風雲兒』의 세리단·깁분더-가 擔當하고 主演은 찰스·로-튼과 크로-드·레인으로 마이켈·카-티-스가 總同監督에 當하게되엿다 이映畵의 製作에 關聯하야 伯林에서는 라인할트를 가둔 유태人인 와-너·社長과 提携하야 歷史上 最大의 유태人革命이라고일컷는 佛蘭西革命을 映畵化하야 유태인의 新人 運動의 힘찬데 나-치에게 藝術的 反抗運動을 여로맵것이라고 動搖를 釀成하고잇다

銀幕夜話

스타버은罪잇다

世界的映畵人스탄버어 朝鮮에 登場하다가 朝鮮唯一?의 女優文藝峰孃을보고 例의 원더풀을連發?한것이 原因이되여 文孃그만 人氣가 하늘에오르고 自信이 朝鮮映畵界에는 監督이업서 朝鮮監督에게 指揮를 밧는다는것은 自殺을 意味하는것이니 東京으로 進出할수밧게업다하야 新興키네마의 鈴木氏와李圭煥氏를 따려 "나그네"를만들려갓다 이番에 눈물이나온이는 例의 漢陽키네마의 安鍾和氏와 "人生航路"의 撮映이 半途중으로 이가되엿다

그리하야 이것만은 어떠케겨여 맛치엿스나 當者인 文孃東京의 세트에 [illegible] 갓는데 키네마는 [illegible] 新興키네마의 合宿所한모퉁이에서 그다지신통치도 못한 對接을밧고보니 지금에야 東京도別것이아니요 차라리 朝鮮잇섯드면 人氣가人氣가 이러한푸대접은 밧지안흘게다 하고同行人에게 귀속말로 感懷를 이야기하리라고 [illegible] 떠나서 들에나가면주는다 이罪는 全部가스탄버에게잇다고 볼수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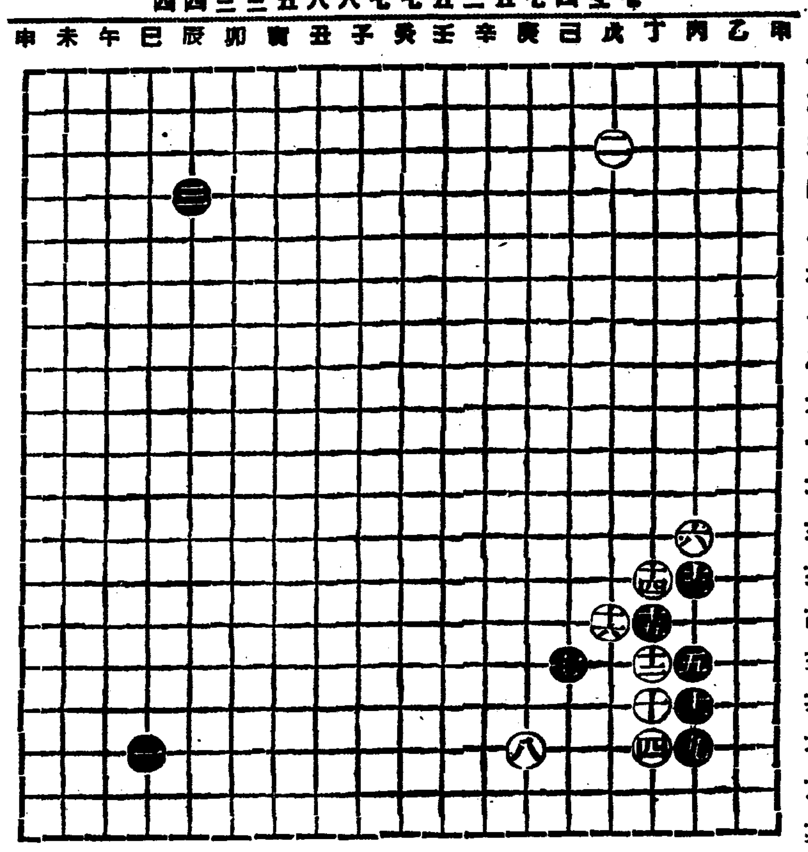
싸인은무섭다

낙시질과 산양엔精神을못차리고 조와 하는 크라-크·케-불이라 一週日동안의 休暇를 하리-케리-의 牧畜農場에서보내기로 決定하고 갓는데 그農場에 엿는 케리-의 令孃, 어떠케하야서 케-불의 싸인을 바터야 할터인데 도모지말을 잘못지안코 낙시질만 다니므로 케리-의令孃 一策을 내엿는데다름이 아니라 케-불의 낙시질가는 길거리에 牧牛를 모라다가 通行을 막어버리엿다 [illegible] 한소떼가 막어섯스니 怯이나서 가든 못하고 케-불이 [illegible]하야도 令孃뜻지 안흘므로 싸인嚴衛로는 前代未聞의珍戰術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

白 蔡極文 黑先 丁奎春

● 一 巳의十七
○ 二 戌의四
● 三 辰의四
○ 四 丁의十七
● 五 丙의十五
○ 六 丙의十二
● 七 己의十五
○ 八 庚의十七
● 九 丙의十七
○ 十 丁의十六
● 十一 丙의十六
○ 十二 丁의十五
● 十三 丙의十三
○ 十四 丁의十三
● 十五 丁의十四
○ 十六 戊의十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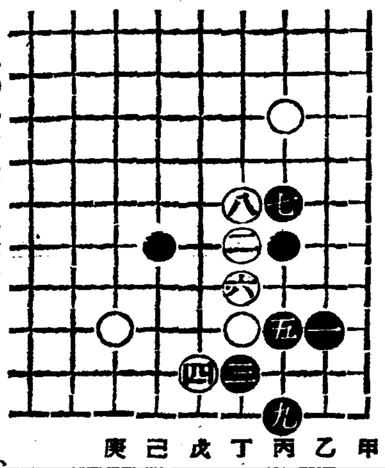


觀戰者談 此譜는 老練手腕으로 新年奮勇하니 一局風雲에 衆目應然이라 津津趣味는宜有同感이로다

黑七(己一五)은 黑九에先鞭함이 白六에 相應切實이나 中原進出을 意味한 己一五는 孤壘戰의 一幕이아니까하노라 若黑七을九에 先鞭할時는 白丙一八 黑乙一八의攻防으로 黑의保偶圖生이될지니라

黑九(丙一七)은 一路低下의 乙一七이 此際操縱의 機宜가아닐까한다 黑乙一七에對白一二로 中斷을 圖할時는 黑은 丁一八로 見揣堅壘하면 白의攻城不下之歎이有할지라

(參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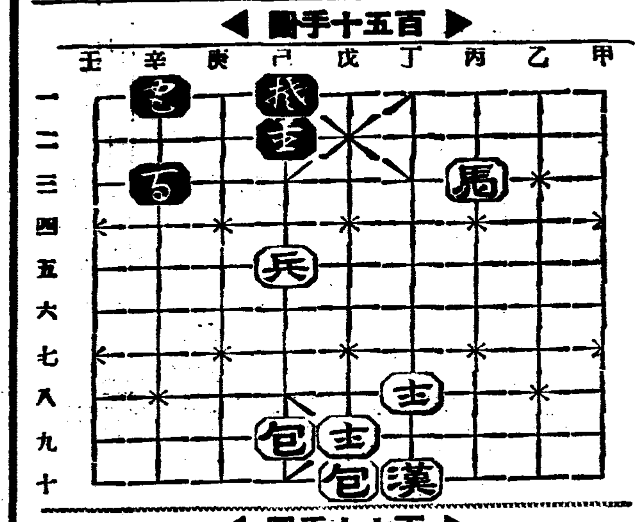


白一〇으로一六에 至하면 順序는 莫可避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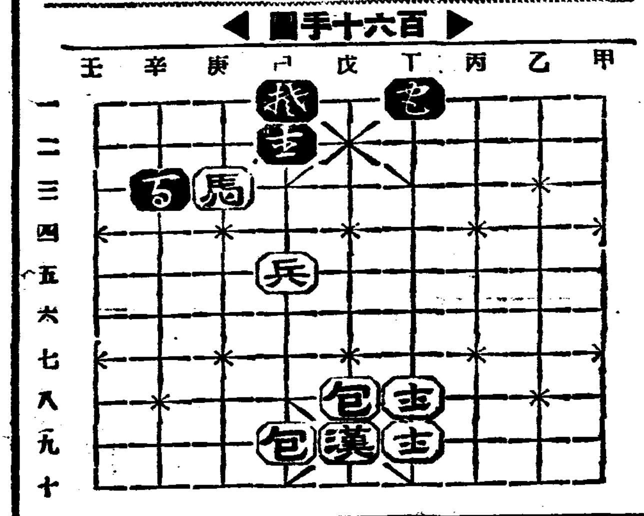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六十)

漢 李在鳳 楚先手 金復起

◀百五十手圖▶



◀百六十手圖▶



五一 丙三馬—戊四 ··· 丁十漢—戊九
五二 辛一包—丁一呼將 ··· 己一包—戊一
五三 戊九士—丁九 ··· 戊十包—戊八呼將
五四 — ··· 戊一包—己一
 ··· 戊四馬—庚三呼將

라디오

무서운因緣

[illegible]

一日 (月)

二日 (火曜)

第一放送

◇同六時(東) 童話
◇同六時二五分 (秋) 副業講座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東) 落語 三笑亭可
◇同八時二〇分 (同) 俚謠
◇同八時四〇分 (大) 歌謠 三
浦環
◇午後〇時五分 伽倻琴併唱
一、短歌 大丈夫 二、唱劇調
沈淸歌 朴秋月
鼓手 丁元燮
◇同一、一五分 副業講座(七)

第一放送

◇午後〇時〇五分 (東)說教節
◇同六時 (城)柴笛과아코듸온
◇同六時二五分 (東)青年時間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 (東)新日本音樂
◇同八時二五分 (大)義太夫
◇同九時 (東)講演

[illegible]

肌に彈力を增す

マスタークリーム

마스타-크림

バニシング

귀여운애기들의살결에때끼자 끼워짐은皮膚에老廢物이생겨 이것이外部의刺戟을더하게하는때문이다 그러나合理的方法으로 어여뿐살결을가질수잇다 科學이發達된獨逸에서 發明한純粹한 兒孩의皮脂와 가티 어른의살결을 生生하게하는 驚異的美肌劑스킨호루몬性劑를 配合한 마스타-바니싱은 깨끗이 살속에 녹아드러 살거침을막고 豐富한 榮養은 살결을 生生하게하며 彈力을주어 기미、잔주름、弛緩을 防禦하고 皮脂腺을 씨서내서 여드름이 생길念慮가 업스며 더욱 이化粧下로 쓰면 驚異할만콤 化粧이 오래 가는 効果 滿點인 科學的 크림이다

잔주름、弛緩 여드름、부름 거친살

お化粧下に最適

均等하게 피여살속에完全히溶込하는고로

アレ止めに効果的

榮養効果가强하고 獨逸特許스킨호루몬性劑配合

七分剃り後に

[illegible]肌力어 [illegible]하고面刀後에 [illegible] 菌이侵入하는것을막는고로

쓰는法

化粧을씻처내는때살결을[illegible]하지안케하고비누로안씻겨지는[illegible]의때를깨끗이업샌다 [illegible]에맛사-지用으로最適한 [illegible]美肌榮養劑라 [illegible]작용으로살결을생생하게한다

マスターバニシング

ゴールド

マスタークリーム

用地價格太高로 收用令發動豫想

日鐵側地價高에 失色、地主側과 交涉斷念?

□咸北道當局의 斡旋注目

製鐵所基地問題

【羅南】 위치의발표는보고 공사착수가임서 등급히여 이론 청진제철소(淸津製鐵所)는 지난 이십팔일부터 일일(日曜)간 부와기사십여명이 래도하야 현장을시찰하겟과 현재의땅갑시 이원이상오륙원까지하는데 크게놀래서 뜻밧게 용지가격문제가 튀처나게되야 용지매수의 장래에 적지안흔 지장이 잇슬것이라하야 일반의주목을 끌고잇다。 즉 문제중의 공장용지는 그 면적이 백만평으로 이번조사반의말에 의하면 그다지 중요시 되지도 못하는 지대일뿐 아니라 사용하는데도 황무지(荒蕪地)로 현저히 저급의 토지임에 불구하고 이처럼 비싼가격을 부르고잇는것은 리해하기 어려운일이라고 펄펄뛰고잇다。

그러나 한편으로보면 제철소문제가 나오자마자 이곳이 후보지의 한곳으로 지목되야 이곳(輸城川西岸)을 중심으로 토지경기바람이부러 투기매매가 성행하야 작년녀름까지이삼십전하든 토지한평에 지금은 삼사원내지 오륙원을 부르고 매매되고잇서 제철소위치발표를보고 이러난 희비극이 만타 이에 비싼 가격으로 매수한 사람들은 그 면운의 한가닭이나 차저날지 모르게 되야 일조일석에 부자된 사람이 잇는 반면에는 경각에 패가할 지경에 이르고 또한편 토지수용령(土地收用令)을 쓰게 되면 엇지되나하는 자못 불안한 상태에 싸여잇섯다。

이러든차에 일철조사반의 래봉을 보게되자 그들의 일거일동이 자못 주목되야오든바 비싸도부수가잇다는말을못고 일반은 자못 당황한가운데서 오직 주선여합을 하고잇는 함북도당국의 조처여하만을 기대하고잇서 당국의 태도가 어느정도로 나갈는지 주목되고잇다。

"收用令適用안코 善處를하고십다"

兒島咸北知事談

【羅南】 수용령이나? 아니냐? 적용된다면 얼마까지나되며 적용을안한다면 얼마까지나 타협할려는고―하는 념녀가 가득찬 요사이 공기는 폭풍우의 지나간뒤의 그것과도가티 수성평야(輸城平野)토지망(土地網)선풍시대의 종막에낫흔 우울 그것을 말하고잇다 모든사람들의 주목은 도당국의 조처에 집중되고잇는이때 조사반(調査班)과협의를마친 아도지사(兒島知事)를만나 공장용지문제의 장래를들으니 다음과가티말한다

『일철조사반(日鐵調査班)의래봉을 보게된것은 사업착수에 압서 기본조사를 하려온것이다 공장용지로 작년 여름에 내가발표한곳은 이곳이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야 백만평을 지적한것으로 일철이 최초부터 지적한바는 아님으로 이번 자세히 본다음에설계를 하게될것이다 용지가격에 대하야는 너무투기매매가 성행하야 이대로내여버려둔다면 장차 손해볼사람이 너무만흘까 두려워 미리발표를한것이나그래도 지금 비싼갑스로 매수한사람이만흔 모양이니 그들에게는 미안한 일이다 토지수용령? 아직그것은 생각치안는다 물론수용할수잇는 국책사업(國策事業)이지만 거기까지 나가지안코 지주측에서 적은 생각을 버리고 최대한의 양보를 하야 적당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를 바란다 적당한가격? 그는 말할수업지만 최소한의 가격으로하여주기바란다 요컨대 이처럼 규모가크고 지방발전에 기대가만흔사업이 이곳에 보게될으로 그만큼 각오하고 양보하는것이 득책이 아닌가한다 운운

아프로 어느정도의 가격에락착될지 자못 궁금하나 한평에 일원에못할것은 아마확실한것으로 얼마까지 주려지느냐하는문제만이남아잇다고 보인다

大商店만相對로 二萬餘圓을詐取

發覺되여咸興署에

【咸興】 음력년말을 압두고 함흥경찰서에서는 지난이십륙일에 본적을 웅본현팔대군문정촌(熊本縣八代郡文政村)에두고 흥남읍천기리(興南邑天機里)에서사는 길영복장(吉永福藏)(?)을 류치하고 엄중취조중인데 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기길영은 작년가을부터 함흥부내에잇는 큰상점들을 상대로 대대적 사기취재를 하여오든것으로 피해총액은 이만여원의 거액에달한다한다。그중에도 함흥역전 모석탄상회에서만도 륙천여원이나 사취를당한사실이 드러나서 계속하야엄중취조중이다

疾走하는土車에 늙은掃除夫轢死

原因은土車速力緩和器不備

【元山】 지난이십칠일 오전열한시경 원산농정리 최제녕(崔濟寧)(?)이라는 로인은 원산청소사(淸掃社)의 소제인부로 잇는 관게로 명석동 앵온천(櫻溫泉) 부근 쓰레기를 소제하야 삽태이에 담어가지고 그아페잇는 밀철서동쪽거리아페 노혀잇는 밀철로를 횡단하려다가 쏜살가티달려오는 토차(土車)에 치어 무참히도 즉사하얏다 이급보를 접한 원산서원은 현장을 검사하는 한편 가해자인 원전조(原田組)인부 송덕룡(宋德龍)(?)과 허영칠(許永七)(?) 두명을 다려다가 방금 취조중이다 그런대 전기 동거리는 원산에잇서는 유수한 식료품시장으로 유명한데 이러한이마거래가 빈번한곳에다 밀철로를 부설하얏스면 응당 로차의속력을 완화할 장치를 할것은 물론 철로좌우에 줄이라도처서 왕래하는사람의 불안과 위험을 덜게 해야 될것이로되하등설비도 안햇다가 그와가튼 참사를 이르키게한데대하야 일반의 비난과 여론이노파가고잇다 그리고 경찰당국에서도 그런위험이업도록 취체를 엄중히하기를 요망하고잇다

婦人講習修了式

【平澤】 진위군평택면 비전리(振威郡平澤面碑前里) 계인야학(癸仁夜學)은 작년도부터 회장안종필(安

老母毆打한悖子!

洞里사람들이"주리"틀어警戒

―厥者即席에서悔過―

【新泰仁】 전북신태인에서는 지난이십팔일 오후두시반경에 시민이 다수히모혀 늘근어머니를 함부로 구타하야 혼도시킨 불효막대한자식을 징게시키기위하야 『주리』를틀고 전신주에 매엿다는 소식이전파되자 시내는 일시 물끌틋하엿다 이제그사실을 조사한바에의하면 시내에거주하는 서패남(徐佩男)(?)이란자는 일즉이부친을여의고 로모와 단두식구에 주류판매업으로 근근 생활을해오든바 수변전에는 게다가 모르히네중독까지되여 정신에변태를 이르키엿든지 종종 자기로모에게 욕설을하며 구타를가함으로 로모는 항상두려워 이웃에사는 어떤로파를청하야 가티잠자리하야오며 아들패남의행동을 갑시해오든바 금번 여름에도 아들패남은 방맹이로 로모를 구타하야 두부에 타상을내엇고 지난이십구일아츰에도 또의연히 폭행을함으로 동리사람들이 제재를 가햇슴에도 불구하고 정오에는 부엌에서불을때고잇는 그로모를 발로차서 일시혼도케하야 인사불성에 이르게하자 동리사람들은 곳주임하는한편 불효의패남을 그와가티 주리를틀어서 전신주에 매어노코 오고가는사람으로하야금 어미를 구타하는놈은 이러케 회회징게를 한다는것을 알리는한편 구타한불효자로하야곰 심일회복케하는비 미처내음며잘못햇다는뜻을 표함으로 훈게하야 폭려주엇다한다

미지못할差人

主人돈橫領逃走

【郭山】 평북정주군곽산면(郭山面) 홍용규(洪龍奎)(?)는 자기와 뒤를거두어 장사시켜주는 김영식(金永植)이란 사람의 돈칠백여원과 신의주(新義州)에사는 오룡갑(吳用甲)이란사람의 두어사람에게서 돈사백여원과합하여 천여원을 횡령하여가지고 지난십륙일에 어데로 종적을감추엇는데 봉천(奉天)방면으로간 형적이 엿다하야 정주경찰서에서는 소관경찰서에 알리어 방금수색중이다。

畓六萬餘町步 洑修築·排水改善

□□十二年度부터着手할터□□

慶南道의旱災對策

【釜山】 경상남도에서는 종래실시하야오든 산미증식계획중의 토지개량사업을 급속히확충하야 적극화시키고자 방금 여러가지로 조사연구중인데 그 내용의대강을보면 도내에 산재한 관개(灌漑)불완전한논 팔만정보중 약오만천정보에 대하야 소화십이년도부터 십오개년계획으로 매년 삼천오백정보식 보(洑)와기타를 수축하야 한해(旱害)를 방지하고 또 수리조합(水利組合)구역안에잇는 논약륙천여정보에 대하야 관개배수(灌漑排水)시설개선공사를 소화십이년도부터 이십개년계획으로 매년 약삼백정보식 실시하야서 일대 경지정리(耕地整理)를 할계획이라는데 일반은 동계획에 만흔 기대를가지고잇다고한다

賭博해돈일코 虛僞强盜告發

【沙里院】 봉산군초와면회루리(鳳山郡楚臥面回樓里) 오대헌집에 버지사는 농업 강덕환(康德煥)(?)씨의집에 일월이십오일 오후시삼십분경 삼인조강도두명이 침입하야 장남 경용(景溶)(?)에게대하야 소(牛)판돈이백여원 잇는것을 알고와다고 협박하고 벼개속에서 현금사십오원을 강탈도주하엿다는 피해자의신고에 의하야 사리원경찰서에서는 조(趙)사법주임과 형사오명이 대활동을한결과 피해자에게 의심되는 점이잇서서 추구조사한바 전기장남봉순 이가 기천면□천하리도평동(岐川面□川下里都坪)

三日동안欠食하고 悲觀自殺企圖

積雪로버리를못하야

【鎭川】 지난 이십구일 오전열한시경 진천군진천면 읍내리에사는 김영윤(金永允)(?)은 양재물을다량으로 먹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응급치료중이다 생명이 매우위독하다는바 그는그날그날 품팔이로 오륙명 식구가 생활하여가다가 눈이싸혀 먹을것이 업서서 삼일동안이나 굶다가 이를 비관하고 그와가티 죽엄의길을 차즈랴든것이라한다

(?) 지사성(金□成)(?)과 우리여 사실오원희로 자기외아버지를 소키기위하야 결국어워선고를 하게되엇다고 면에이되엇는데 세상에 우울거리가 되엇다한다

地方人事

▲有田清信氏(前陜川郡內務主任)昌寧郡內務主任으로榮轉

▲吳周鉉氏(前陜川郡屬)東萊郡轉勤人事係同上

▲尹麟夏氏(陜川郡守)新任人事次本社陜川支局來訪

寄港料撤廢要求

船舶料引上에反抗

海漁組와商工業者對峙

【釜山】 부산부내에잇는 해조조합(海漕組合)에서는 물가폭등으로 현재의운임(運賃)으로서는도저히 수지가맛지안는다는 리유로 이월일일부터 운임을 일할오분을 인상하겟다고 동조합의 명의로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도매상련맹(釜山都賣商聯盟)에 정식으로 통고하야 왓스므로 현기항단체에서는 여러가지로 의의하든바 동상십일에 전기해조조합에 현재보다 일할오분을 인상하게 된다면 수이출(輸移出)부면에 막대한 영향이미치게될것이니 기항료(寄港料)매돈이원칙밧는것을 철폐하야 달라고 요구하는 동시 경성에잇는 조선무역협회(朝鮮貿易協會)에 진정서를 보내엿다는데 금후전기해조조합의 태도가 주목된다고한다

假差押封印떼고 竊盜罪로被訴

【淸州】 가차압인을떼고 절도죄로 걸거되여 청주서에취조를밧고잇는사나이가잇다―청주군북이면 내추리(北二面內秋里)장××현(張××)(?)이라는 사나이는 동군남이면상발리(南二面上發里) 조준영(趙□□)이라는 사람에게 이백오십여원의 빗을지고잇는데 이것을 갑지안는다하야 지난가을 전기장에게 텁도차압을하자 장은 차압한봉인을 떼여버리엇든바 집달리의고소로 절도죄로 방금청주서에 취조를 밧고잇다고한다

大規模의金密輸犯 三名을一時檢擧

裡面에는脅迫恐喝도潛在

【新義州】 신의주경찰서사법게에서는 수일전부터 압록강에 활동을 하여오든중 지난이십구일밤 부내 상반정(常盤町)상정목 금괴(金塊) 밀수사건으로 방금 보석중에잇는 압강려관주인 하야데차랑(下野□次郎)외 두명을 검거하야 취조중인데 사건의내용은 전기하야가 소화십년여름부터 최근까지 대판잇는 모거상인과 련락을 취하야 금괴두판 시가이만륙천원을 만주로밀수출한사실이 발각된것이라는데 하야는작년여름 금괴밀수사건으로대전(大田)서에 검거되여방금에 심보석에잇는중 이번도 새로운 밀수사건이 발각된것인데 대전밀수사건과 합하면 밀수액이약 십만원에 달하리라하며 리면에는 사건의 내용일할고 협박공갈한 사건도 잠재하야 취조여하에 따라서는 관게자도다수검거될모양으로 큰주목을끌고 잇다한다

平北의國境道路 交通事故激減

【新義州】 평북도내에는 험악한 도로가만허 다른도보다 훨씨자동차사고를 내이고잇다 작년도중의 자동차사고수는 일백사십일건으로 그중사고로 말미아마 생명을버린자가 십칠명 부상한 사람이 오십사명에달하는데 이를소화십년도중에발생한 사고이백오십일건 사망자가 이십일명 부상한 사람이백삼십칠명에 비하야보면 대감소로 기쁜현상이라 한다

굶게된四千餘名

釜山陶器工場全燒로失職된八百職工家族

舊歲末압두고生途暗澹

【釜山】 기보=지난 삼십일밤이른아츰에 부산부목도(牧島)에잇는 일본경질도기주식회사(日本輕質陶器株式會社)공장 건조장에서 발화되여 동공장 삼동을전소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전기 공장에서 일을하야 사오인의가족이 겨우살어나가는 직공이 백여명이나되는데 그들은동공장이 복흥되기까지 수개월동안은 실직을하게되엿음으로서 수입이 전혀업게될터이라 그들의 직공과 가족등 사천여명의 생도가 크게곤경에빠지고한다。더구나 구정(舊正)을눈아페두고 이동정에 라남치여이 전혀업는그들의 전도가 매우다 우려된다고한다

生鮮內臟을먹고 二家族五名死傷

四名은即死하고一名은危篤

群山新興町의慘事

【群山】 생선내장(內臟)을 먹고 두집식구다섯명이 사상을한 참사가 군산에발생하엿다―참상의 내용인즉군산부신흥정(群山府新興町)십오번지에 사는 김복동(金福童)(?)이가 지난 삼십일에 생선내장을사다가 남은 내장을 가두엇다 동일 오후 한시경 끄리여서 자기처박성녀(朴姓女)와가티 먹는동시에 이웃에사는 신동우(申東雨)일가에게도 주엇든바 즉시복통을이르켜 전기김복동과 신동우의 조모한선구(韓善求)(?) 처손분이(孫粉伊)(?)와 장남 용치(龍治)(?)은 즉사를하고 복동의안해 박성녀가고민을 하고잇는것을 동리사람들이 발견하고 즉시도립(道立)병원으로 떠메갓스나 그도방금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坑夫二名死傷

【咸興】 지난이십팔일정오에 안변군학성면대력광산(安邊郡鶴城面大力鑛山) 금광구소포(金坑九松浦)갱내에서 큰소리와함께 불발락다이나마이트가 폭발되야 굴안에서 일하고잇든 광부일명(씨명미상)은 즉사하고 또한명은 빈사의중상을당하얏다

府電 條例改訂延期

그러나料金만은減下

【平壤】 평양부전의 전기조례개정은 사원회의로 급박하엿고개정안은 삼개월전인 금월중에제시국에 신청하여 인가를엇게되엿스나 시야(矢野)부윤이 부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전을 서전에매도하기로 결정하여그안을 전기료제정위원회에 제출하여 큰파란을 일으키다가결국 부결된채로 마음되고 하엿다 이때문에 부회의원으로서는단순히 전기료감하에대한 안을 만드러 제출하기를 기다려서의 토의를하기로되엿습으로 자연의료금의 인가신청의 제출도 느저지게되엿다

長篇小說 그의自敍傳【42】

長白山人 作 熊超 畫

교원생활 (二)

나는 (?) 거상을 입을것이언마는 쓸데없는 허례라고 주장하야 거상을 아니 입엇다。무론 영연도 설하지아니하고 조객이 와도 곡도 아니하엿다。내 안해가 삿갓가마를 타고 머리를 풀고 와서 우는것을 듣기싫다고 다시는 곡성을 내지말라하고 머리 푼것도 보기싫다고 소리를 첫다。다들 내 말대로 순종하엿다。

벌서 시집간 애경이 누이가 온것도 울지말라고 소리를 질럿다。나는 이것으로 구습을 혁파하는것이라고 자처하엿고、나만 한 큰 사람은 이렇게 새법을 내는것이 옳다고 자신하엿다。일가와 어른들은 내가 하는해괴한 행동에 눈쌀들을 찌프리고는 다 달아나버렷다。욕이 내 귀에도 들어왓다。그러나 나는 잘하는체 하고 뻣대엇다。개혁가요 선구자로 자처하엿다。그러나 나는 해가 갈사록 늙은조부에게 대하야 죄송한 마음이 깊엇다。나는 동경서 돌아온 뒤에만이라도 왜 곁에 뫼서서 시탕을 못햇던고、운명하는 마즈막 밤만이라도 그 곁에 못 뫼셧던고、하는 한이 가슴에 맺혓다。나는 조부의 앞에 엎드려、

『다시는 조부님 곁을 안 떠나겟습니다』하고 우는 꿈을 사십이 넘은 오늘까지도 꾸는 때가 많다。아마 이 한은 내일생을 두고 가실 날이 없을것이다。지금 이 글을 쓸 때에도 나는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닫는다。

K학교 교사로 온 뒤에 조부상 기타로 약 일개월이나 학교를 쉬이고 밤낮 술만 먹고 돌아다녓다。나중에 들엇거니와 교주 N로인은 나를 초빙한것을 크게 후회하엿다고 한다―

『저것이 원 선생노릇을 할수가 잇나?』

이렇게 걱정하엿다고 한다。

N노인은 나를 자리를 잡게하기위하야 집 하나를 사고 살림을 차리게하엿다。집이라야 방 두간 벽하간뿐이오 대문도 없고 헛간 한인、불향 외따른 오막사리다。산을 남쪽으로 등지고 잇어서 하로 종일 가야 볕한번 안들고 그리고 대낮에도 방안은 끌방갈이 을칫하엿다。이 집은 내 조부모가 돌아가면 집만도 못한 집이엇다。나는 그집이 무른 마음에 안들엇다。나는 아버지쩌만도 못하다는 비애까지 느꼇다。나같은 훌륭한 선생을 다려다가 이모양으로 대우하는가 하고 N교주에게 대하야 불쾌하엿다。이러한 집에서 마음에 안드는 안해와 단 둘이서 살라는것은 큰 모욕이오 큰형벌인것 같이 생각햇다。더구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남궁석이는 서울을 갑네、동경을 갑네하기에 무엇 큰 사람이나 되는줄 알엇더니 인제 저 꼴이야?』

하고 나를 멸시하는것이 더욱 견딜수가없엇다。그것은、나와 한 고향사람으로서 나와 같이 동경 가잇던 사람이 이웃골 원을 해가지고 와서 거드러거리는 M이라는 사람과 대조하는데서 더욱 심각하엿다。

『나는 내부대신이 원으로 가라는것을 마다고 바차고 온 사람이야』

하고 속으로는 뽐내어보지마는 그 속을 세상이 알아주지를 아니하엿다。실상 나는 군수가 되라는것을 욕으로 알고 픽웃고 말앗건마는 그래도 교육사업을 하는것이 가장 높은 지위라는 자신이 서지를 못한것이다。게다가 내 아버짓 나이나 되는 학생들이 힐끗힐끗 의문의 눈으로 나를 감시하고 비평하는 양이 못견디게 불쾌하여서 나는 날을 세우노라고 늙은 학생을 불러다 세워놓고 딱딱어려도 보앗으나 도모지 어울리지를 아니하엿다。

나는 여전히 술을 먹엇다。학교 시간만 끝나면 술친고를 찾아다녓다。N교주이하 직원들과는 아모조록 아니 대하라고 하엿다。밤새도록 술을 먹다가 술냄새를 피우면서 교실에 들어갓다。준비도없는 중학교 졸업생이、놀라지말지어다、물리、화학은 물론이어니와 천문학、심리학、이러한 일생에 들어보지도 못한 과정을가르치니 기막힐것아닌가。그때K학교에는 천문학、심리학 외에 헌법、국제법、형법같은 과정까지도 잇엇다。중등학교인지 전문학교인지 모르는 그러한학과뜰이엇다。

나는 내가 공부하던 중학교를 표준으로 K학교의 학과배정이 옳지못함을 주장하엿다。그러나 어린 주정뱅이 교사의 말이설 리가 없엇다。나중에 들은즉 여름 방학만 되면 나를 내어보내기로 내정하엿다고 한다。

耳鼻咽喉科 姜

醫學博士 姜日永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二六六五

入院室完備

獨逸原料

룡표물감은세상에나온지 십이년간에애용하야주신 혜택을보답코저사은권을 올드립니다

룡표물감을한봉사쓰시고한일이바드십시요

룡표물감이백봉마다 호한장、이호한장、삼호일백구십매식드립니다

룡표물감

물감한봉사쓰시고 금비녀 금성합 타가십시요

사 은 품

일호에는순금비녀일개

이호에는순은비녀일개

삼호에는사은권이십매와룡표물감한봉과교환함

사은품 교환기일과방법은사은권에기재되엿습니다

일거양득이오니기한지내기전에빨리선사품을바더가십시요

룡표물감은룡표물감판매점마다잇습니다

특약판매를원하시는분은속히조회하십시요

産地直輸入元 京城府鐘路三丁目

染料御商 龍標封染製造部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一八〇番 振替口座京城八〇四番

好職業

不景氣모르고、失敗업고、本業副業、男女老少不問、自宅에서 簡便、年中無休、見本無代進呈 申込者에게 大阪天王寺區

朝鮮語綴字器 崔鼎善著 立文社 朝鮮語學會推奬

各學校卒業記念寫眞帖作製印刷 (コロタイプ)

笹沼寫眞印刷所 咸興府軍營通り 電話長一五七番

時計材料附屬品眼鏡 (卸商)

一新舍

京城府御成町一〇七 電本局五八一

新民謠 不忘曲 -새타령- 盧碧花 唄 (1400)

傑作流行歌 돗달고간배 미스터、태평

新民謠 조치조와 -젊은이노래- 사나희심술 崔南鏞 趙抹蘭 太平合唱團 (8259)

태평레코-드

大亂賣 포리도-루레코-드 POLYDOR

壹圓五拾錢盤 壹圓拾錢也에

地方注文은要先金

地方開業者에限하야 都賣도함

京城鐘路二丁 一樂號店 電光五七七 振替京城17587

急告我全州李氏瑞原君子孫

京城府上道町(舊始興郡東面金佛庵)에在한瑞原君以下各墓所所在地林野賣却에對하야多數宗親의要望으로緊急報告할事項이有하옵기本月七日(日曜)午前十時京城府太平通府民館에서宗中會를開催하오니右瑞原君子孫인僉宗은同期出席하시믈仰要(但代理權이有한分은其委任狀과自身의實印을必히携帶하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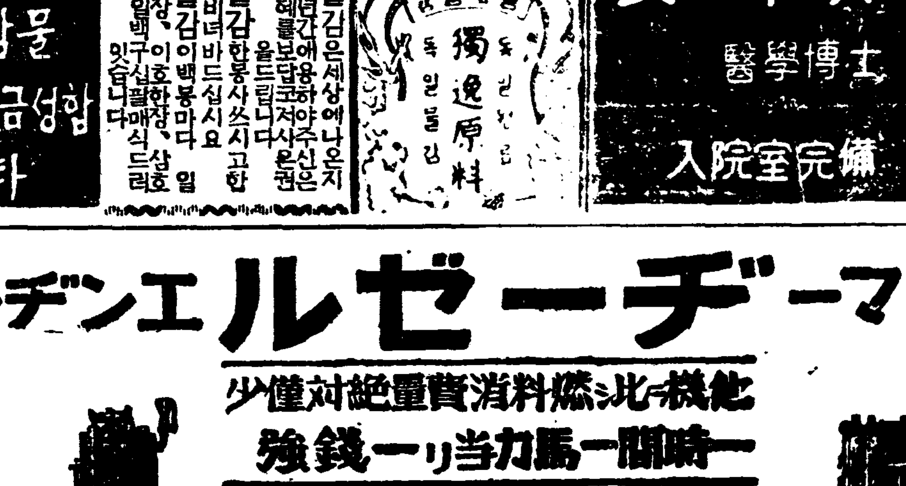
昭和十二年二月一日 李起錕外十一人一同 白

內燃機界ノ覇王 ヤンマーヂーゼルエンヂン

絶對良好ナル其他準備操作ヲ要セズ

能機ノ兆燃料消費量絶對僅少

一時間一馬力当リ一錢強



三—四馬力 五—六馬力 七—八馬力 十—十二馬力 十五—十七馬力

十—十二馬力 十四—十六馬力 十五—十七馬力 二十—二十二馬力 三十八—四十三馬力 四十—四十四馬力

二五—三十馬力 五十—六十馬力 七五—九十馬力 百—百二十馬力

大量製産・在庫豐富

京城府京城驛前 株式會社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電話本局一〇〇三番

本社・大阪市北區茶屋町

型錄贈呈

中央館 永樂町 本三〇一四

一日より三日迄 大都現代劇部特作 串差おでん 佐久間妙子 陞下 十錢均一 旅鴉一夜嘶 大乘寺八郎 佐久間妙子主演 大都時代劇特作 每日晝夜三回興行

優美館 貫鐵町 電光三九五

一月三十一日부터特別大封切 遊社超特作全發聲大連續篇 래이대이라!氏大作品! 豪勇그라그렇니암스氏主演 天空快速王三回 大都映畫特作現代劇 吉村操監督作品! 도아메이리!一二世 진로자!스텝 大都映畫特作時代大劍戰篇 須磨の仇浪 琴絲路 主演 松島智三氏監督 藤間林太郎 水島道太郎 助演 萬花飛龍劍 東山宗三郎 久龍 中松子 遠山龍三郎 主演 助演

二月一日부터大公開 料金階上二十錢階下二十錢均一 ◇三大名畫大封切!! ◇大都映畫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西遊記 孫悟空 全十二卷 大都創立以來의雄大한스케숄과大스타를가지고完成한大스펙타클 監督…石山稔氏 撮影…岩藤隆光氏 出演…藤間林太郎、都健太郞、淸水明、琴絲路、木下雙葉、大岡怪童…外에스트라數千名出動 (大衆本位의大都映畫) ◇關東映畫社提供全發聲日本語版 쿠ー캉의大成功 全六卷 主演…잘키ー쿠ー캉君 ◇全發聲日本語版 爆笑劇 키ー톤의獸人擊破 全六卷 喜劇王바쓰타ー키ー톤氏主演 次週…綠의騎手、鬪의銃聲、肉彈總攻擊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一三三番

一月二十八日낫부터 劇團 靑春座公演第五週 悲劇 『흘너간鳳女』 四幕 朴英鎬作 人生의뒤골목을橫斷하는稀代의美貌를띄인薄命한鳳女의一生記!過渡期男女들의눈물겨운이야기는새삼스럽게도우리들을울게만할것입니다。朝鮮劇界의俊才인劇作家朴英鎬씨가오래동안沈默을직히다가이번靑春座公演機會에特別提供하는傑作입니다。

喜劇 오!너의일홈은女子니라 一幕 南宮春作

女子되신여러분!女子란女子때문에女子요그러기때문에女子라합니다、이演劇內容은미리말슴하지안으나보시면아실레니、女子가된女子인지옷지말고보십시요! 次週特別豫告◎李雲芳作『漢江물은푸르건만』林仙圭作『잇지못할사람들』

東洋劇場

朝鮮日報 京城販賣 電本局一五九七

朝鮮日報 江華支局 電話三十一番

朝鮮日報 釜山支局 電話本局二六九七

經濟時評

結城藏相確定

馬場財政經濟修正?

李健赫

林大將은 一日中組閣을 完了하려라는데 藏相에는 結城興銀總裁로 確定하얏다한다。一日의 各市場은 政局安定人氣로 大幅昻騰을示하얏고 就中取引所株는 政局不安으로低落하얏던것이 軍需株、金鑛株의暴騰을비롯한 雜株高로 株式界는 强調情勢에依하야 讓然反撥된것이 注目된다。

宇垣大將의組閣工作이 對軍部關係로 流産되엇던 狀勢에 鑑하야 林大將의組閣은 軍部의意嚮을 體한 軍部中心內閣이라할수잇고 結城氏의 藏相으로馬場財政修正을 就任條件으로하얏다傳하나 果然 어느程度로 修正될것인지는 多大한 疑心이 업지 안타。누가 藏相이되던지 內外諸情勢로보아 財政方針을 根本的으로 다시말하면 準戰時經濟情勢를 轉換식힐수업는터이지만 馬場財政과가튼 無軌道無批評의 財政經濟策은 當然再檢討를 要하러라는 財界의希望에 副하야 結城氏가 果然平素의持論인「健全財政主義」를 主張하고 中庸的健全財政政策으로 實際에 臨하야 能히 取捨할것인가? 는今後에 注視하야할일이다。[illegible]의修正을期待할수잇슬가?

×

新內閣의 使命은 庶政一新斷行에잇고 庶政一新의 中心問題는 經濟統制에잇는바 이經濟統制가 財界의 關心거리이다。

무엇때문에 統制를하느냐하면 國防을充實키爲하야 그資金을 얻고저하는 手段에不外한것이다。國防을 充實히하라면 三十億가량의 豫算이 必要하며 三十億의 巨大한豫算을 實行하면 財源이不足함으로 一層增稅이오 이것이 實現되면 不勝物價는 아모리 抑制하드래도 當然騰貴를 招來케될것이다。이것은 年末年初에 耳하야 이미 그先驅를보이어 物價內閣이 議會를앞두고 物價對策에 苦心하얏던것은 우리가 잘아는일이다。林大將이아니고 다른사람이 首班이 되엇던지 藏相이 結城氏가아니고 다른사람이 되엇던지間에 今後인플레氣氣를 左右할수업섯슬것이오 財界에서 가장 걱정하얏고 또걱정하는 經濟統制의 强化도 財界를 寒心케하는 種類의것을實行할수업는것이라고 보는것이 常識이나 問題는 軍部의 財政經濟政策에 對하야 그대로 新內閣의 方針을 反映케되지나 안흘가하는 不安이 업지안흔것이다。

×

最近의 物價高의 原因은 世界的事實이므로 內閣更迭에 依하야 크게 變化될理由는 업스며 政情安定은 조흐나 經濟界의 [illegible] 物價의 引上은 [illegible] 本軌道에 들어가 [illegible] 新財政經濟政策如何에 依하야 財界의 [illegible] 것은 想像되는일이다。

結城新藏相決定 京城財界好感

財政經濟政策基調無變化이나 問題는馬場財政修正

林內閣의 藏相은 結城豐太郞氏로 確定되엇는데 右에對한朝鮮財界의 意見을 綜合하면如左히 大體當然視하는것으로 好感과期待를가지는모양이다。

即結城氏는 馬場財政方針을大體로 踏襲할것은 現下의 準戰時經濟情勢로 推하야 當然推測할수잇는일인데 財界에及할 極端한 影響을두려워하야 多少이에 修正을 加하야 穩健한 財政方針을取하자는 中庸的意見의 所持者임으로 大勢에는 變함이업드래도 急激한變化가업슬것을 財界는 安心하고잇는모양이다 要컨대準戰時經濟時代인 今日의 財政은政治가이것을 左右할것임으로 누가 藏相이되던지 財政經濟政策의 基調에는 變化가업슬것으로 人物識見의 定評이잇는 結城氏의 藏相은至極適任이오 다만 朝鮮에는 緣故가적은 사람인만큼 도리어白紙態度로 發展途上에 잇는朝鮮의 經濟에 期待를가저도 조흐리라는意見인모양이다

代表的意見

横瀬朝銀理事 結城氏는 無難하다 그러나今日은 財政이 政治를左右하는時代가아니오 政治의힘에 財政이左右되는時代임으로 누가藏相이될되든지 맛찬가지이나 結城氏는이點을 相當히穩健한 意見을가지고잇고 相當한決意도잇는듯함으로 어떤意味의期待는할수잇다 何如間 準戰時經濟時代임으로 所謂統制主義도 漸進的으로强化케될것이오 또政局이 安定되는것은 조흔일이다

渡邊殖銀副頭取 今日馬場氏를除하고 藏相이될사람은 結城氏밧게업다 至極히適任이다 特히 膽力이잇고 線이굵고 重厚한 感이잇슴은 卓越한識見과함께 非常時內閣의大藏大臣으로最適任이나政府의財政方針에는 큰變化가업슬것이오 도리어極端으로부터中庸에 모든것이 好轉될것이다

各市場一齊沸騰

政局安定好感人氣로

宇垣大將의 大命拜辭로 政局의中間的動搖가 念慮되어 市場은 氣迷人氣에 陷하고잇든바林大將의 組閣工作進捗과함께 政局安定에 安堵人氣가 자못明朗化하야 一日의諸市場一齊히買氣가沸騰하게되엇는데 廿七日前寄와比較하면 如左히 大幅昻騰을示하엿다

		今日前寄	廿七日前寄	比較
大阪大新		九四、六〇	八七、六〇	七、〇〇高
同 鐘新		二三八、三〇	二三四、五〇	三、八〇高
東京新東		八七、〇〇	八一、〇〇	六、〇〇高
同 日産		一五八、七〇	一四八、六〇	一〇、一〇高
大阪綿絲	七月限	二六〇、四〇	二四七、八〇	一二、六〇高
大阪棉花	七月限	七八、〇〇	七三、一〇	四、九〇高
大阪人絹	五月限	八五、二〇	七九、三〇	五、九〇高
福井人絹	五月限	八六、一〇	八一、二〇	四、九〇高
大阪期米	三月限	三三、三三	三二、七三	六〇高
東京期米	三月限	三三、五七	三二、五九	五八高
仁川期米	三月限	三〇、六七	三〇、一九	四八高

對外貿易 또新記錄

入超減을示現

一月中朝鮮對外國貿易槪算額左와如하다

◇輸出入品價額(單位千圓)

區別	本年 千圓	前年 千圓	增(△印減)減 千圓
輸出 朝鮮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內地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外國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入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年頭一月對外貿易은 前年一月에 輸出 四百九十四萬九千圓輸入 一千百四萬三千圓으로最高記錄을 示하얏는데 本年一月은 此記錄을 凌駕하야 輸出七百十四萬四千圓輸入一千百八十四萬三千圓에 達하얏다

二、輸出增加는 綿織物及人造絹織物의 對滿輸出各七十餘萬圓의 激增을 筆頭로 鹽魚의滿洲及中國向이 不少하야日輸入의增加는大宗인 滿洲粟까닭이오 百三十八萬 一千圓이 著減하얏스나 日本內地産粟에臨한 安東産柞蠶絲及 葉煙草가 各八十餘萬圓의 激增을 筆頭로 樺被類(主로綿衣類)六十一萬圓 豆類四十五萬圓 石炭毛織物中國麻布及 玉蜀黍各十餘萬圓增進에 依한것이다。

限外發行激增

◇……『콜』入手難이原因

三十日繰越된 朝鮮銀行券發行額은 總額一億八千九百九十三萬三千圓을 係給關係一段落에依하야 二十八日來一億九千萬圓을 割하얏스나 注目한것은限外發行高가激增되어 至十日繰越은 實로三千六百萬圓의巨額에 達한 點이다

右限外發行은 昨年末의 十二月三十日의 三千九百萬圓에다음가는 巨額으로서 今年一月에入한後의 推移는 中旬에半消減하고 下旬에 入하야一千萬圓台에 達하얏다가 二十九日繰越二千二百萬圓에서 三千六百萬圓으로激增된 것임으로 一月末의 如斯한限外發行激增은 全혀 異例的傾向이라한다 이는 日本內地의 金融 市場의『콜』入手難에 原因한것으로正貨準備는 一月二十日과 如히 一億三千七百萬圓이던것이三十日은 一億三百萬圓으로三千四百萬圓이

朝鮮米優遇

運動奏效

穀物協會聯合會에서는 一月中旬부터 齋藤聯合會幹事長外 各協會幹部가 日本內地各地에 出張하야 大阪、神戶、東京、名古屋等地에서 朝鮮米格付 優遇運動을하고 歸任하얏는데 右運動의結果 朝鮮米의 今年의作況에 徵하야 적어도 一三十錢格下斷行機運이던 日本內地 各米取의 格下를 阻止하고 一部의 優遇도 實現되엇다한다 即

一、大阪、神戶=格下運動이 相當히 根强하나 運動의結果据置로決定

一、名古屋=丸木銀坊主、丸元丸十 陸羽十錢格上實現其他据置

專賣事業大擴充

阿片輸出增大、米葉輸出開始等

增産으로農民에利益

榛原專賣局長은 專賣事業을 協議키爲하야 渡東中이든바三十一日歸城하야 如左히 一日午前記者團에게 말하얏다

◀阿片輸出增大=從來阿片은 滿洲國方面에 年年五千萬貫程度의 輸出을 行하고잇섯는데咸鏡南北道의 熱烈한 罌粟의增産要望이잇서 多年의 懸案이던것이 今回各省의 阿片幹事會에서 輸出의 數量을 增加하야주기로 圓滿히 解決되엇슴으로 增産키로 決定하얏다 내가 滿洲國에 赴任하야 二三月頃 까지에 契約을 締結하고 올터인데 從來는罌粟耕作者에 對한 賠償金이 一키로 三十圓 一貫 百二十圓으로 合計七十五、六萬圓이던것이七千貫으로三千貫增産하야 一萬貫으로하면年百萬圓의돈이火田地帶農民에게떠러지게될것이다

◀朝鮮産黃色種米葉輸出=葉煙草의 海外輸出은 從前朝鮮産 日本內地葉이 歐洲方面에 僅히十五、六萬貫輸出될뿐 이엇는데 今回는 朝鮮産黃色種米葉의大量輸出促進計畫을 樹立하얏다 第一期計畫으로서는 歐洲方面에十萬키로 中國方面에 三萬키로 滿洲方面은 未定이나 漸增方針을 取하겟다

現在는 米國으로부터 約三百萬圓의 米葉을 輸入하고 朝鮮內의生産高는 約二百萬圓程度인데 産地의革正을圖하야 將來는反對로 輸出로轉換해갈方針이오 消極的으로부터積極的으로變하고저한다 即輸出産業으로서農村에對하야專賣事業의 利益을 徹底케하야가는同時에 專賣局으로서는新國策的事業이라고한다 葉煙草耕作者의 收入이되는 賠償價格은 一段步에對하야 米葉百八圓 日本內地葉五十四圓鮮葉三十圓임으로 今後 米葉의 大增産하면 耕作者의 收入이 늘것이다

汎太平洋博

朝鮮館建設

總督府殖産局에서는 本春三月十五日부터 名古屋에서 開催되는汎太平洋平和博覽會를 비롯하야三月二十日부터 開催되는 高知의南國土佐博覽會 三月二十五日부터 開催되는 別府國際溫泉産業博覽會 七月北海道小樽에開催되는 北海道大博覽會等의 出品準備를 急히하는中인데 同博覽會에는 朝鮮館을 建設하고朝鮮의 農畜林 水産 産物等의日本內地紹介를 行키로되고經費五萬圓을 計上한다 其中名古屋의朝鮮館은 一萬一千三百圓으로써百九十七坪의 入札을終了하고 이미工事에 着手한다 右朝鮮館은 總督府側의 農畜林産物、水産鑛工産物外에 外局이 共同出品하야 鐵道、遞信、專賣를合하야 更히 五萬圓을 計上하고 鐵道局에서는 觀光、交通、運輸、遞信局에서는 運輸電力、其他遞信事業의 全貌를 紹介 專賣局에서는 專賣事業宣傳等 朝鮮産業經濟의 積極的紹介를 行키로되엇다한다

林業會社創立

折衝協議中止

朝鮮의 林業資源開發에 積極的으로 進出키로된總督府에서는內外有力財閥에 依하야 創設될朝鮮林業開發會社에 對하야 向二十個年補助金을 交附하야 助成키로되여 矢島農林局長이 折衝協議를 하기爲하야 渡東 하엿스나 折衝에際하야 政變에逢着한때문에 交涉이 遲延될모양으로 右問題의 折衝을 中止하고 來三日乃至四日頃 歸任할豫定이라한다

經濟界消息

○朝鮮製鍊重役會=朝鮮製鍊에서는一日午後二時부터 重役會를 開하고 第二回末拂込徵收의時期其他에關하야 重要協議를하얏는데 大體一株十二圓五十錢拂込을二月一日頃徵收할모양이라고

○朝鮮麥酒重役全員重任=朝鮮麥酒에서는 過般第七期決算總會를 開催하고 八分配當을 附議可決한바 取締役全員任期滿了改選이엇다

○三井物産支店新社屋建築=三井物産京城支店에서는 社屋改築計畫을 樹立하고 本店과 折衝中이든바 支障이업는限 年

寸鐵

○馬場氏의 뒤를이어 結城氏藏相就任確定

○非常時藏相은 特殊銀行總裁의 차지?

○馬場財政을 어떠케修正할지 가 구경거리 修正을當하리라 馬場氏도 就任前에는 그러케될줄을알앗슬일 結城氏도또그러케 되지나안홀가?

○事實事業擴充으로 農民에게利가 만켓다고 專賣局長豪語 제발그러케 잘되시오

株式

奔騰後에一息

今日의市勢 【一日】

前場暴騰 休日동안에 林大將의組閣工作이 着着進行되어 政局이安定되고 陸軍의急激改革回避聲明、結城氏藏相就任說等이好感되어 人氣明朗化와함께 朝寄附는 東新二圓九十錢 鐘新二圓四十錢 大新二圓二十錢 日産一圓九十錢等으로 諸株暴騰에 幕을열게되어 東新百五十七圓八十錢 大新九十四圓五十錢、日産八十八圓五十錢까지 買進되엇스나 大引이가까운때에利喰으로 反弛商狀을보여 結局東新五圓四十錢、大新二圓十錢、鐘新七圓九十錢、日産七圓丁으로前場을마치엇다

後場揉合 後場은 東新一鐘高 大新二十錢高等으로 少堅調에 寄付하야 揉合裡에 推移되엇다

人氣明朗化!

인플레再謳歌

組閣工作의進捗에依한 政局安定은 人氣의安堵를招來하야 再昨前場强調裡에 諸株가上放하엿

雜株全面好勢

軍需株狂騰!

電力株가 前途悲觀濃厚되여 鍾狀인以外에는 諸株一齊高의 場面인데 그中에서도 紡績 人絹等은 少堅이며 金鑛株는 金塊高로 續高인데 亦是軍需株가花形으로 一齊狂騰場面을 보이고잇다。

軍需株가 注目할것은 無 [illegible] 準戰時財政의 編制의 影響은 豫想되지안 이어니와 가장 注目될것은 事實軍需工業의 擴大와 軍需工業의 股盛은 一層助長한것이 事實인 買人氣를 一層助長한것이 되엇스나 [illegible] 오로兩觀하고 市場의人氣가 全般的으로되엇는데 政局의 [illegible]

▲化學工業株 帝國火藥은 一圓高로 二〇、〇日本曹達新은三圓三十錢高로 三七、五 電工新、이 五十錢高로 三〇、五 日滿이 아루미는 二圓三十錢高로 六九〇이엇다

▲産金株 帝國産金이 一圓八十錢高로 四四、三 朝鮮製鍊이 二圓二十錢高로 三五、二 도리지가 八十錢高로 三二、八 全鑛鍊이 二十錢高로 二〇、二이엇다

▲鑛業株 三菱新은 一圓五十錢高로 九一、〇 日石新은 一圓六十錢高로 六七、〇 北樺油는 三圓高의 五一、五이며 新野鋼山이 八十錢高인데 炭鑛株는 爆發로 北樺炭新이 四圓五十錢高 磐城炭이 二圓三十錢高 同新五十錢高 入山採炭이 一圓高 太平洋炭이 八十錢高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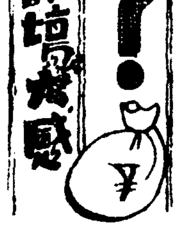
▲其他 品川白煉은 一圓二十錢低로 七八、五 同新이七十錢低로 三八、五이며 에타파이新은 九十錢高로 一八、〇 日産고무는三十錢低인 五八、四 共同漁業은 一圓三十錢高인 三三、五이엇다

貨物前場取引

▲全羅鑛業新三〇、五〇 ▲東洋モス新三一、七〇 ▲東滿鑛業[illegible] ▲富士木材三〇 ▲日本工業[illegible] ▲石川島造船[illegible] ▲同新[illegible] ▲大[illegible]

▲無水酒精問題=東拓과 折衝하야본結果 疑問이만흠으로 事業의 實績을보고서 昭和十四年度부터 豫算을 編成키로 大體根本方針을 決定하얏다 來年二月新義州工場이事業을開始케되나 果然 二月부터 開始할지 모른다 燃料國策事業의 見地로 企業하는것이므로 强制混和의 運用法即供給의 確保 價格低減、取締嚴格、業者利害 摩擦防止等이 眼目으로서 朝鮮만이 補助金制度로서 가는 專賣事業으로 方針을 決定하얏다 將來或은 製造專賣로될지도모른다 製造專賣로하면 會社利益을 看破케되는 만큼 價格이 低減될것이다

市場雜感



株…年末年初에는 纖維株中心의 平和株의 大活躍時代를 現出하드니 ▲場面은 再轉하야 政變을契機로 다시時局株에 買人氣가集中 ▲軍需株가 採算的으로 惠澤을입을것은 明白하나 이것도 어느 限度를넘으면 危險線이 ▲오래동안 不人氣中에 低迷하든 日産이 昨年十月의 高價八五圓五를 上廻한것은 日鑛高를契機로 再認識時代가온 것을表示 ▲興味의中心은 漸次로 優良産業株에로 轉移…

米…林銑十郞氏의組閣은陸軍의 全幅的歡迎이므로 組織은다만時間問題▲이로부터 軍需『인풀레』의景氣가 到來하야 物價昻騰에 非常한變轉을 加하게되거니와 米價政策에잇서서도 農民擁護에 重點을두게되므로 間接直接으로 米價의昻騰招致?

期米

上鞘發會後下押

前場伸惱 今朝東京은中限三十二圓四十錢新甫四月限은三十二圓八十五錢인四十錢上鞘로 發會되고 大阪은中限三十二圓六十錢新甫四月限은 三十二圓六十一錢인二十七丁上鞘로發會되엇스며 當地는當限三十圓六十三錢中限三十圓九十一錢으로 新甫四月限은 三十一圓六十七錢으로 反撥發會되엇다 其後仮地六十四錢으로 五十八錢까지下押하엿다가 六十四錢으로 反戾할때를보아 八十五錢下押하엿다가 結局九十錢二本同價로場을止하엿다

後下押 後場은 三十圓七十九錢인 十一丁反落으로 始場한後 三四節七十六錢으로 五節七十丁錢에下押하엿다

新甫上鞘發會

卅一圓臺突破?

新甫四月限은 一般의 豫想과如히二十四丁의 上鞘로昨年의 十一丁上鞘보다 十三丁이나 以上上鞘로 發會되엇스며 又는昨年

國債

政局安定反撥

▲東京【東京電話同盟】政局은 漸次 安定되고 特히 結城氏의 入閣決定으로 今後財政政策도 悲觀을 必要가업다고 實需方의 處分急이되어 一、二回四分의 二十錢反撥을 爲始하야 五分利도 小堅하고 佛貨도 三十錢反撥하엿스나 三分半만은 아직警戒되엇다 米貨債는 昨日來相當히 賣込한 關係도잇서 六分半四圓四十錢 五分半三圓七十錢急反撥을 告하엿다

▲甲五分利 一〇〇、四五 ▲一回四分利 一〇〇、八〇 ▲二回四分利 一〇一、一五 ▲佛貨 一九六、五

○▲大阪 ▲甲五分利 一〇〇、四五 ▲第三五分 一〇一、一〇 ▲第一回四分 一〇一、六〇 ▲佛貨 一〇〇、五五 ▲第二回四分 一〇一、六〇 ▲米貨六分半三貨 一九六、四〇 ▲滿洲公債 一〇〇、六五

今日財界一日

◆米 (單位錢)

	今日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三〇、六九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三三、[illegible]	[illegible]
京城一等白米一石	三五、[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一斤	二、[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圓)

	今日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共同漁業新 [illegible] ▲池貝鐵工新 [illegible] (取引三〇株)

政局安定好感

昻騰一途뿐?

一時政局不安의嫌이 업지아니하야 騰勢一挫되어 境遇에依하야는 一段瓦落을 示할듯도하엿스나 宇垣大將은 大命을拜辭하고 林銑十郞大將에게로 組閣의大命이降下되어 於是乎政局安定의好感을呈하야 一昨日의强硬納會로 一休今朝에入하야 各地共히 氣構渙하야 新甫先限은二十餘丁上鞘로 三十一圓臺를 肉迫할에至하엿다 大體米의事情으로보아 할지라도 朝鮮은凶作일뿐만아니라 農家의方針이 絶對賣惜方針을取하야 低價에는 賣應치아니하므로 容易히低落을 許하지안코 兼하야 林內閣이組織되는때에는 그政綱의恩澤이 軍人側에뿐만아니라 細農民에 至하기까지 미칠것이다 即大資閥의 擁護보다도 兵農兩側의 保護가 적지 아니하야 米價의 慘落을 放任하지 안흘것이므로 쌀은쌀의 自體와 政治的關係로 보아서 어느程度까지의 好勢를뵈히고야 말것이므로 아즉도 押目買의 策戰이 得策일것이라는 말이 만다

正米

清算高로硬化

京城硬化 期米急反撥을보고 又復二十錢硬化하엿스나 買不振이다 ㊀三等三〇、五〇 四等三〇、二〇 一等白米三三、〇〇

仁川反高 日本內地買氣萎縮으로 買警戒嚴重하나 低價買物薄인데다가 環境好轉으로 期米의急硬化를옴겨 市勢는二十錢高이엇다 ㊀三等三〇、五〇 四等三〇、二〇 一等白米三三、五八

釜山反撥 市場出廻는 四千叭이잇섯스나 期米急反撥을보고 二十錢高唱이되엇다 實方의態度는依然히 氣强하나 日本內地賣行不振으로 買方은 當用小口買뿐이오 賣買는圓滑히進捗되지안는다 ㊂三等三〇、九〇 四等三〇、六〇 一等白米三三、〇〇

大邱不變 環境明朗化로期米急騰을보나 賣行停頓狀態로買氣不添하야 市勢는 頑重하다 ㊂三等三〇、五〇 四等三〇、二〇 一等白米三二、三五

群山昻進 清算期近의 沸騰을보고 氣配다시 二十錢續騰을 告하엿다 他方出廻도 相當히 多量으로나오나 一段의高價待로 貪人하는편이만허 賣買는 상로閑散하다 ㊂三等三〇、四〇 四等三〇、二〇 一等白米三三、一〇

木浦强 正米는 目前에 두고 産地에서 多少賣放하엿스나 高價唱으로 賣態度는 極히强하다 今朝에 定期新甫의 比로는 十錢高唱이엿다 ㊂三等三〇、七〇 四等三〇、四〇 一等白米 三三、〇〇

前略 實需筋은 到底히 田中眞의 一手買方의 勤을 明白하야 三團體示現은 不 … 大量買付한것이 注目되고잇는데 同人은意外로消極的인態度로 中限에는 一千石의 利喰을엇고 先限도 二節以降에는 買物이업고 朝鮮側은 新甫를 積極的으로 買進하다 上場을 思惑實進하얏스며 水野로부터의 當限現實은 正米實聚賣나 汐政의 適價實라고한다

山源取引店開業

旣히朝取米豆部取引員의認可를 受한山本源作氏는 商號를알에今日부터開業하엿다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新甫發會의 今日은 環境好轉豫想으로 買物이 殺到하야 當中이 四十丁의 爆發을 演하엿다 中限과 逆鞘化한 當限에는 田中員의 買玉이 三萬石가량잇서 現在産地事情으로推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六九・一三五

株式 玉 期米 柳來恒取引店 仁川本町

金銀 金土金 分析 賣買 金銀賣買會社 京城府鍾路二丁目一一九番地 (和信舘前) 電話光化門二一八一七番

海外經濟

[illegible]

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正米

[illegible]

雜穀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鹽油粕・麥粉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illegible]

滿洲商况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短期主要株取組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期米 / 大阪長期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 大邱期米 / 釜山期米 / 群山期米 /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 東京期米 / 大阪期米取組 /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絲 / 棉花 / 人絹 / 生絲 / 砂糖

[illegible]